

I . 발해의 성립과 발전

1. 발해의 건국
2. 발해의 발전
3. 발해국의 주민구성

I. 발해의 성립과 발전

1. 발해의 건국

1) 고구려 멸망 후 그 유민과 말갈족의 동향

(1) 고구려유민의 동향

668년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 그 유민은 다음과 같이 몇 갈래로 나누어 흩어졌다. 첫째는 당에 의해 중국 내지로 끌려간 이들이다. 당과의 전쟁 기간 중 요동성 등과 같은 당군에 함락된 성의 주민과, 고구려 멸망 직전 男生이 이끌고 당에 투항한 국내성 일대의 주민들은 당으로 강제 이주되었다. 보다 대규모 이주는 평양성 함락 직후에 행해졌다. 당은 고구려인의 저항을 봉쇄하기 위하여 669년 2만 8천여 호의 고구려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켰다. 이 때 주된 대상이 된 이들은 평양 일대와 요동지역의 주민들로서, 고구려 상층부에 속하는 豪強한 민호들이었다. 당에 끌려간 고구려인들은 요서의 營州지역 · 회하유역의 황무지 · 甘肅省 회랑지역 · 黃河 상류지역 등지에 분산 정착되어졌다. 감숙성지역에 끌려간 이들은 그 뒤 이 지역 지방군의 유력한 병력원이 되기도 하였는데, 유명한 高仙芝장군은 바로 그 좋은 예이다. 그리고 왕족과 귀족들은 주로 당의 수도지역에 幽居되었다.

둘째는 신라로 넘어간 이들이다. 당의 지배에 저항한 고구려유민들의 부흥운동은 평양성이 함락된 이듬해부터 일어났다. 평양지역에서는 劍牟岑이 봉기하여 귀족 安勝을 옹립한 뒤 당군에 저항하였다. 그러나 안승과 검모잠간의 알력과 당군의 압박으로 내분이 생겨, 안승이 검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넘어갔다. 이 외에도 고구려 남부지역에서 부흥운동군이 당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는데, 673년 호로하전투 등에서 패배한 뒤 신라로 넘어갔고 평양 일

대의 주민 다수도 함께 신라로 갔다¹⁾. 이후에도 평양 이남지역과 예성강유역 일대는 신라군과 당군간의 전쟁의 주된 무대가 되었다. 그에 따라 이 지역 주민들의 대부분이 신라로 가니 평양 일대는 황폐화되어 갔다.

셋째는 요동지역에 계속 거주하였던 이들이다. 요동 일대는 598년 이래로 고구려와 수·당간의 전쟁의 주된 무대로서 전쟁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이다. 669년에는 당에 의해 이 지역 주민의 상당수가 중국으로 강제 이주되었고, 그런 당의 폭거에 대한 저항이 각지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의 고구려 부흥운동은 671년 安市城의 함락을 고비로 종식되었다. 한편 676년 당은 安東都護府를 이곳으로 옮긴 후, 남생을 도호부의 관리로 파견하고²⁾, 寶藏王과 일부 유민을 귀환시키는 등 이 지역의 안정과 지배권 확립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보장왕이 反唐 모의를 하자 재차 그와 일부 유민을 당 내지로 이주시켰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당의 지배에 불복하여 이 지역 고구려인의 다수는 신라와 돌궐 및 동부 만주지역으로 이탈해갔다.³⁾ 그에 따라 안동도호부 관내의 요동지역에는 소수의 빈약한 戶口만이 남게 되었다. 요동지역에 대한 당의 지배력은 8세기 중반까지 유지되다가, 安祿山の 난 이후 이 지역의 고구려인들은 점차 자립해가는 형세를 나타냈다. 그것이 이른바 小高句麗國이다. 그러나 소고구려국은 곧이어 8세기 초반 발해의 宣王대에 발해의 세력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다.⁴⁾

넷째는 고구려의 서북부지역인 요동과 부여성 일대에 거주하던 이들로서, 몽고고원 방면으로 이주해간 집단이다. 몽고고원으로 이주한 고구려인들은 돌궐의 可汗의 휘하에서 몇몇 집단으로 나뉘어져 자치를 영위하였다. 그 중 默綴可汗의 사위가 된 高文簡의 경우 ‘高麗王 莫離支’라고 칭하기도 하였다. 이들 집단 중 일부는 8세기 전반에 다시 돌궐을 이탈하여 당으로 넘어가기도 하였다.⁵⁾

1) 《舊唐書》권 5, 本紀 5, 高宗 下 咸亨 4년 윤5월 정묘.

2) 〈泉男生墓誌銘〉(《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 韓國古代社會研究所, 1992), 495쪽.
《新唐書》권 110, 列傳 35, 泉男生.

3) 《新唐書》권 220, 列傳 145, 東夷 高麗.

4) 盧泰敦, 〈高句麗遺民史研究—遼東·唐內地 및 突厥方面의 集團을 중심으로—〉
(《韓沽昞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1981).

다섯째는 동부 만주의 고구려인들이다. 동만주지역은 직접 전쟁의 무대가 된 곳은 아니었으며, 668년 후 당의 지배 영역에 실제상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지역의 고구려인과 말갈족이 고구려군의 주요 병력원이었던 만큼, 오랜 전란과 망국의 여파는 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두만강유역과 길림 등지와 같이 고구려의 주요 성이 있었던 곳에는 고구려인들이 많이 살았지만, 그 외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주민의 다수가 말갈족이었다. 광대한 지역에 걸쳐 말갈족 사이에 산재하여 고구려의 지배조직과 연관을 가지며 생활하고 있던 고구려인들은 기존 정치조직이 해체되고, 말갈족이 크게 동요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종전의 우월한 위치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그들간의 횡적 연대를 맺어 새로 통합된 정치조직을 형성하기도 어려운 상태였다. 따라서 이 지역의 고구려인들은 말갈족 사이에 산재하여 고립된 생활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⁶⁾

7세기 후반 동만주지역에서 있었던 또 하나의 큰 변화는 많은 수의 고구려인들이 이 지역으로 유입된 사실이다. 전란의 와중에서 그리고 당의 압제를 피하여 원 고구려의 중심지였던 서·남부지역에서 많은 유민들이 흘러들어왔다. 이들은 대규모 집단으로 조직적 이주를 해온 것이 아니라, ‘散奔’⁷⁾이라는 표현처럼 소규모로 각 방면에서 간헐적으로 이주해와 각지에 분산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668년 이후 서·남부지역의 상층부 호강한 민호의 다수는 당에 강제 이주되었거나 부흥운동의 주력이 되었기 때문에, 동으로 이주해온 이들은 기존의 빈약한 호구나 전란으로 피해를 입은 민호들이 다수였다고 여겨진다. 자신들의 생활 터전을 박탈당하고 기존 조직이 와해된 채로 뿔뿔이 각처에 散居한 이들 유민들이 곧 어떤 조직적인 세력으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전란을 피하여 혹은 생존을 위하여 각지에 은거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한두 세대가 흘러 전란의 상흔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동만주 신개척지에서 그들의 우월한 생산기술로 생활의 터전을 다져나갈 때, 그들은 이 지역의 새로운 활력소와 변수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5) 위와 같음.

6) 盧泰敦, 〈渤海 建國의 背景〉(《大丘史學》19, 1981).

7) 《新唐書》권 220, 列傳 145, 東夷 高麗.

이들 이주해온 유민들은 당과의 격렬한 투쟁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고구려인으로서의 강한 自意識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동만주지역에는 말갈족이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우월한 문물과 빛나는 역사를 지녔고 얼마 전까지도 이들 말갈족을 지배하여 왔던 고구려유민들은 자연 수적인 열세 속에서 그러한 자의식을 더욱 강하게 느꼈을 법하다. 바꾸어 말하면 어떤 유민집단의 정치적 움직임이 있으면 그들간에 쉽게 결합할 수 있는 내적 응집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요소들이 구체적인 정치세력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광대한 동만주지역의 각지에 산재해 있는 소수의 고구려유민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새로운 힘의 구심점이 필요했으나 이 지역에서는 아직 형성되지 못하였다.

(2) 말갈 부족들의 상태

7세기 후반 말갈족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靺鞨諸部の 연혁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6세기말 7세기초의 말갈족의 상황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읍락에는 각각 주장이 있고 통일된 상태가 아니다. 무릇 일곱 부류가 있다. 그 하나가 粟末部이다. 고구려와 접해있고 勝兵이 수천이며, 용감하고 무용이 뛰어나 매번 고구려에 쳐들어가 노략질을 하였다. 둘째는 伯咄部로서 속말부의 북쪽에 위치하며 승병이 7천이다. 셋째가 安車骨部로서 백돌부의 동북쪽에 있다. 넷째가 拂涅部로서 백돌부의 동편에 있다. 다섯째가 號室部로서 불열부 동쪽에 있다. 여섯째가 黑水部로서 안거골부의 서북에 있다. 일곱째가 白山部로서 속말부의 동남에 있는데, 승병이 3천에 불과하다. 흑수부가 그 중 군세고 강하다. 불열부 이동은 돌화살촉을 사용하는데 이는 옛적의 肅慎氏이다.…그 땅에서는 보리·조·기장 등이 난다.…사람들은 사냥을 생업으로 삼고 있다(《隋書》권 81, 列傳 46, 東夷 靺鞨).

이는 당시 중국인들이 전해 들은 사실을 간략히 기술한 것이다. 이들 말갈 7부 중 속말부는 대체로 粟末水, 즉 북류 송화강과 그 지류인 휘발하유역 및 부여성(長春, 農安) 서북에 이르는 지역 일대에 거주하고 있었다. 백돌부는 북류 송화강 하류와 拉立河유역, 안거골부는 지금의 하얼빈 일대인 阿城을

중심으로 한 평원 일대로 그 위치를 비정하고 있다.⁸⁾ 불열부와 호실부는 남립하구역의 동편으로 막연하나마 비정될 수 있다. 흑수부지역은 동류 송화강 하류 일대이다. 백산부는 백두산 북쪽 斜面 일대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 말갈족사회는 ‘읍락마다 추장이 있고 통일된 상태가 아니다’라고 한 표현이 말해주듯, 상설적인 지배조직을 갖춘 어떤 통합력이 말갈족 자체 내에 형성되어 있지 못하고, 각 촌락별로 자치를 영위하고 있었다. 위의 기록에서 말하는 ‘部’라는 것도 그 구성원 전체에 대해 일정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단위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7부란 지역적 여건이나 방언·풍속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 말갈족의 여러 집단들을 중국인이 전해 들은 바에 의해 지역별로 구분하여 파악한 것일 뿐이다. 7부의 명칭을 볼 때 속말수·(장)백산·흑수 등과 같은 강이나 산의 이름으로 그 지역 주민들을 호칭하여 분류한 것이 있다. 그리고 어느 방면의 말갈족 중 가장 크거나 알려진 부족 또는 촌락의 명칭을 따서 그 지역 주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파악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경우 만약 다른 부락이 강성해져 알려지면 그 부락이 그 지역을 대표하게 되므로 중국인들이 파악하는 그 지역의 부의 명칭도 바뀌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인의 건문의 범위가 확대되면 다수의 새로운 부의 설정도 가능해진다. 실제로 《舊唐書》靺鞨傳에서는 “그 나라에는 수십의 부가 있고 그 각각에 추장이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7부라는 것은 말갈족의 7부족으로서 영속성을 지닌 집단은 아니었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이 7부의 동향을 살펴보면 각 방면의 말갈족의 동향을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면 6세기말 7세기초 말갈 7부에 고구려의 영향이 어느 정도 미쳤는가를 살펴보자. 먼저 속말부의 경우 그 거주지역이 고구려의 중심부에 인접해 있었고, 또 고구려의 주요 성이 속말부지역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고구려의 지배 아래 완전 귀속되어 있었다고 여겨진다. 나머지 부들의 경우는 이들의 고구려 멸망 후의 동향을 보면 역으로 그 전의 상태를 추론해 낼

8) 《吉林通志》 권 10.

수 있다. 고구려 멸망 후 말갈 부족들의 상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하는 기록이 있다.

백산부는 일찍이 고(구)려에 복속되었는데, 평양이 함락된 후 그 무리의 대부분은 중국으로 옮겨 갔다. 백돌부·안거골부·호실부 등도 고(구)려 멸망 후 흩어져 (그 세력이) 약해져 그 뒤로 그들 부에 관한 소식이 전해지는 바 없으며, 그 유민들은 모두 발해의 편호가 되었다. 오직 흑수부만이 강성해져 16部로 나뉘어졌다(《舊唐書》권 199 下, 列傳 149 下, 北狄 靺鞨).

이를 통하여 백산·백돌·안거골·호실부 등은 고구려의 지배 또는 강한 영향권 아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오직 흑수부와 ‘大拂涅’이라 칭할 만큼⁹⁾ 그 세력을 확대한 불열부만이 그 지배망 밖에 있었다.

말갈족은 고구려와 수·당간의 전쟁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 고구려군에 있어 말갈족은 그 전부터 주요 병력원의 하나였다. 신라나 백제와의 전투 때에도 빈번하게 동원되었음을 《三國史記》의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말갈족은 삼림에 거주하며 수렵활동을 통하여 길러진 기동성이 뛰어난 종족이었다. 이러한 자질을 바탕으로 수·당과의 전쟁에서 고구려군의 전초병이나 기습부대로 활약하였고, 적군의 후방을 교란하고 보급로를 차단하는 유격부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¹⁰⁾ 그에 따라 70여 년에 걸친 오랜 전쟁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위의 기록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668년 이후에는 당에 의해 일부 강제 이주되기도 하여 말갈족사회는 전란의 여파로 혼란이 매우 심하였던 것 같다.

위의 기사에서 ‘奔散 微弱’해졌다는 것은 백돌부 등의 명칭으로 분류·파악된 그 지역의 말갈족사회의 기존 질서가 무너졌음을 말해준다. 즉 고구려가 한 유력한 촌락세력을 그 지역의 대표적 존재로 인정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 일대의 여러 촌락들을 집단적으로 예속시켜 그 지역에 대한 지배망을 구축했었으나, 고구려 멸망 후 이것이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오히려 고구려에 충성하였기에 전란에 가장 큰 피해를 입어 약화되었고 하위 촌락들

9) 《新唐書》권 219, 列傳 144, 北狄 黑水靺鞨

10) 《新唐書》권 220, 列傳 145, 東夷 高麗.

의 이탈과 저항을 받게 되니 흩어져 도망가거나 미약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동시에 고구려 세력에 의해 편제되어 형성되어 있던 말갈 부족들의 기존 질서의 와해를 의미하는 것이다.¹¹⁾

그 결과 7세기 중반 이후 말갈족 내에서는 越喜部나 鐵利部 등과 같은 새로운 집단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전란과 고구려 멸망에 따른 충격의 여파를 받지 않고 더욱 번성하여 세력을 떨쳤던 흑수부조차도 16부락으로 나뉘어져 각각의 추장이 자치를 영위하는 상태였다.¹²⁾ 따라서 7세기 중반 말갈족사회에는 어떤 강력하고 통일된 세력이 형성되지 못한 상태였다.

이렇듯 7세기 중반 동부 만주지역의 상황은, 기존의 고구려의 지배질서는 무너지고 새로이 통합된 정치세력은 아직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서, 고구려유민 집단과 말갈족의 여러 부족들이 각지에서 흩어져 자치를 영위하고 있었다. 이는 동만주지역 주민들의 내부 사정에 기인한 것인 동시에 당시 국제정세에 의해 그러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이다.

2) 676년 이후 동북아 국제정세

買肖城전투와 伐伐浦해전에서 신라에 패배한 것을 고비로 당은 한반도에서 철퇴하여 676년 안동도호부를 요동으로 옮겼다. 이후 당은 허갈해진 요동지역을 충실화하여 동북아지역으로 재진출하기 위한 전진기지로 삼으려 하였다.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당 내지에 강제 이주시켰던 고구려유민과 보장왕을 676년에 다시 요동으로 귀환시키고 요동의 주민들을 안정시키려 하였다. 같은 해에 義慈王의 아들인 夫餘隆을 熊津都督 帶方郡王으로 봉하고 당 내지로 끌고 갔던 백제유민을 요동의 建安城에 옮겨 웅진도독부를 이곳에 僑置시켰다.¹³⁾ 그런 뒤 678년 재차 한반도에 대한 대규모 원정을 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예상되는 신라의 강력한 저항과 이 시기 당의 서부지역을 압박하는 吐蕃의 공세로 인하여, 이 계획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당 조

11) 盧泰敦, 앞의 글(1981b).

12) 《新唐書》권 219, 列傳 144, 北狄 黑水靺鞨.

13) 《資治通鑑》권 202, 唐紀 18, 儀鳳 원년 2월 갑술.

정 내에서 강하게 일어나 좌절되었다.¹⁴⁾ 그 뒤 東征의 논의는 다시 제기되지 못하였고 당의 지배영역은 요동에 한정되어졌다.

한편 요동의 당 세력은 말갈족의 움직임에도 주의하였다. 특히 말갈족과 과거 그들이 지배하였던 고구려유민들이 연결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력하였다. 만약 고구려유민과 말갈족이 재차 결합한다면 요동의 지배권은 물론이고 당의 동북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었다. 실제 676년 요동으로 귀환한 보장왕이 곧 말갈족과 모의하여 당에 저항하는 거사를 도모하다 발각되었다. 위협을 느낀 당은 다시 보장왕과 고구려유민에 대하여 당 내지로의 대규모 강제 이주를 단행하였다. 그리고 677년 안동도호부를 요동성에서 그 북쪽에 있는 新城으로 옮겼다. 이는 요동의 고구려유민과 말갈족과의 교섭의 길목을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내려진 조치였다. 이후에도 당은 이 가능성에 대처하였을 것이며, 그것이 안동도호부를 요동에 계속 유지하도록 한 주요 목적의 하나였다. 나아가 말갈족 내부의 동향에 대해서도 주의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요동지역 자체가 이미 戶口가 크게 감소되어 텅 빈 상태였으며, 말갈족에 대한 당의 영향력은 주로 요동지역 주변에 한정된 것이었다.

696년 거란족의 봉기로 당의 요동 지배가 난관에 봉착하자, 정면으로 안동도호부 포기론을 내세운 狄人傑의 상소에서 “요동은 이미 돌밭(石田)이 되었고, 말갈은 먼 지역으로서 鷄肋과 같다”¹⁵⁾고 하였다. 이는 7세기말의 요동의 상태와 말갈에 대한 당의 관심과 영향력이 약하였던 일면을 전해준다. 당이 동만주지역의 말갈족에 대해 다시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 것은 725년 흑수말갈에 黑水府를 설치한 이후부터이다. 따라서 7세기 중반 사실상 대부분의 말갈족사회는 당의 영향력 밖에 있었다.

7세기 중반 신라의 세력 또한 동만주지역에까지 뻗칠 여유가 없었다. 신라는 당의 세력을 한반도에서 몰아낸 후 더 이상의 북진은 하지 않았다. 이는 신라 국내의 사정과 국력의 한계 그리고 신라정부 자체의 정책적 의도 등이 함께 작용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14) 《舊唐書》권 85, 列傳 35, 張文瓘.

《資治通鑑》권 202, 唐紀 18, 儀鳳 3년 9월.

15) 《舊唐書》권 89, 列傳 39, 狄人傑.

金春秋가 당 태종 李世民과 함께 신라와 당간의 군사동맹을 맺을 때, 평양 이남지역을 신라 영토로 한다는 협약을 한 바 있다. 이런 협약은 상황에 따라 파기될 수 있는 것이지만, 新·唐戰爭 중인 671년 문무왕은 唐將 薛仁貴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협약의 내용을 다시 환기시켰다.¹⁶⁾ 이는 당의 압박을 완화시켜 보려는 의도를 담은 것이지만, 한편으로 당시 신라의 전쟁 목적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 신라군이 압록강을 넘어 진출한 적도 있지만 그것은 관위가 沙湊인 薛烏儒가 이끈 1만 명의 부대로서 고구려부흥군과 함께 행한 작전이었고,¹⁷⁾ 대규모 병단을 대동강 이북지역에 진출시킨 일은 없다. 당군의 막강한 세력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서남부 백제지역을 완전히 병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이상의 진출은 신라군에는 무리라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당군을 패퇴시킨 후에도 신라는 새로 병합한 지역과 주민을 경영하는 데 주력하였고, 강력한 왕권을 정점으로 한 중앙집권체제 구축에 골몰하였다. 684년 고구려유민 집단의 자치국인 報德國을 해체시키는 등 전국을 9州 5小京으로 편제하였다. 한편 신문왕 원년(681) 金欽突의 난을 계기로 진골 귀족들에 대한 일대 숙청을 단행하여 왕권 강화를 꾀하였다.

이런 대내적 체제정비에 주력하기 위해서는 대외적 안정이 무엇보다 필요하였다. 그런데 676년 이후에도 신라와 당 사이에는 이면적인 대립이 지속되었다. 당은 신라의 대동강 이남지역의 병합을 인정하지 않았고, 720년대까지도 고구려와 백제의 왕손을 각각 ‘고려조선군왕’과 ‘백제대방군왕’으로 봉하여 당의 수도에 幽居시켜 놓고 있었다.¹⁸⁾ 때가 되면 다시 이들을 앞장 세워 한반도로 쳐들어갈 수도 있다는 의도를 내포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라는 朝貢使를 파견하는 등 당과 관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일면으로는 당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한편 신라는 663년 백제부흥군을 지원한 일본군을 白江 하구에서 격파한 이후, 일본과 직접적인 충돌은 더 이상 없었지만 일본에 대한 경계도 늦추지 않고 있었다.

16) 《三國史記》 권 7, 新羅本紀 7, 문무왕 11년 7월.

17) 《三國史記》 권 6, 新羅本紀 6, 문무왕 10년 3월.

18) 《舊唐書》 권 23, 禮儀 3, 開元 13년 11월 임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신라는 그 북방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취하지 않았다. 신라가 그 북부 국경선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을 나타낸 것은 발해가 등장한 이후인 8세기 전반부터였다. 그런만큼 7세기 중반 신라의 세력이 동만주지역에 뻗칠 여지는 없었다.

7세기 후반 북아시아지역의 형세를 살펴볼 때, 돌궐 세력의 消長이 주목된다. 돌궐은 630년 刮利可汗이 당군에 격파된 이후 그 세력이 붕괴되어 당에 복속하게 되었다. 640년대에는 薛延陀의 세력이 일시 강대해져 고구려와 연합하여 당에 대항하기도 하였으나,¹⁹⁾ 이 또한 당에 격파되어 급속히 약화되었다. 그후 몽고고원지역은 당의 지배 아래 있었다. 그러다가 680년대에 들어 돌궐이 다시 일어나 고비사막 이북지역에서 세력을 떨치며 당을 압박하였다. 당시의 돌궐은 서로는 天山山脈에 이르고 동으로는 興安嶺을 넘어서 북부 만주지역에까지 세력을 뻗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돌궐은 長城 일대에서 당과 치열한 대립을 벌이고 있었고, 그 주력도 여기에 집중되었다. 그래서 서북부 만주지역에 대한 영향력은 그리 컸던 것 같지 않다. 서북 만주에 있던 室韋族이 7세기 중반 당으로부터 이탈하였지만, 곧 당군에 의해 격파되어 다시 복속하게 되었음을 볼 때 그런 면을 알 수 있다.²⁰⁾ 돌궐이 후속말갈에 그 지방관인 吐屯(tudun)을 둔 것은 8세기초였다. 따라서 그 이전에 돌궐의 세력이 동부 만주지역까지는 도저히 미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듯 676년 이후 동만주 일원은 당·신라·돌궐 중 그 어느 쪽도 세력을 뻗치지 못하는, 국제 역관계에서 일종의 힘의 공백지대였다. 대내적으로도 통일된 세력이 형성되지 못한 형편이었다. 그러한 여건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 형성의 모체가 될 수 있는 힘의 구심점이 등장할 때, 그것은 이 지역 사회에 급속한 변화를 몰고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 새로운 구심력은 營州 방면에서 東走해온 大祚榮집단이었다.

19) 盧泰敦, 〈高句麗·渤海人과 內陸아시아 住民과의 交渉에 關한 一考察〉(《大東文化研究》23, 成均館大, 1989).

20) 《新唐書》권 219, 列傳 144, 北狄 室韋.

3) 대조영집단의 동주와 건국

대조영집단이 徙居되어 있던 영주지역은 大凌河 상류로 비교적 건조한 지대였다. 이 지역은 5세기 이래 중국세력의 동북 관문이요, 동북아시아 여러 종족들의 교역 중심지였다. 7세기 이후 당제국에 흡수되어진 종족들로 구성된 靺鞨州가 다수 이 지역에 설치되었으며, 고구려 멸망 후 많은 고구려인과 말갈족이 이 지역에 옮겨져 생활하고 있었다. 이들의 영주지역에서의 거주 양태는 아마도 그들이 이곳에 옮겨오게 된 동기에 따라 일부는 집단적으로 예측된 기미주로 편제되었고, 일부는 영주 성내나 성 옆에 거주하며 편호되어 영주도독부의 직접 지배를 받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대조영집단은 기미주 형태로 편제되어 집단적으로 예측되어 있었다.²¹⁾

영주지역은 이른바 異族的 氣風이 강한 곳이어서 한문화의 압력이 덜 하였고, 주위에는 상대적으로 저급한 문화를 지닌 종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런 환경은 이곳에 강제로 옮겨진 고구려인들이 그들의 독자성을 유지하는 데 상대적으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그들은 기미주형태로 집단적으로 예측되었으므로 자체의 조직과 결속력을 상당히 유지할 수 있었다. 나아가 멀리 떨어진 이국 땅에서 幽居生活을 하는 피복속민으로서의 동일한 처지로 인하여, 문화적·역사적 친연관계에 있는 고구려인과 말갈족 사이에는 상호 이해와 화합으로 진전된 동류의식이 형성될 수 있었다.

전란과 이주에 따라 극도로 피폐해진 상태는 세월이 흐를수록 어느 정도 회복되어 갔을 것이다. 특히 戶口의 증식이라는 면에서 그러하였을 것이다. 696년 5월 거란족의 수령 李盡忠이 돌궐의 후원을 받으며 봉기하여 당의 영주를 엄습하고 스스로 無上可汗이라 칭하며 당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이에 따라 영주지역 일대는 큰 혼란에 빠졌고, 일부 이종족 집단들은 당의 지배에서 벗어나 이탈해 나갔다. 당황한 唐 조정은 영주지역에 설치하였던 기미주들을 대거 장성 이남지역으로 옮겨 이에 대처하였다. 이런 와중에서 고구려

21) 盧泰敦, 앞의 글(1981a).

유민들과 말갈족의 동향은 일정하지 못하였다. 일부는 계속 이 지역에 남아 있거나 당군과 함께 행동하였다. 그래서 영주가 다시 당의 지배 아래 들어간 이후 이 지역에 거주하며 당의 군병으로 활약하기도 하였다. 고구려유민으로서 유명한 李正己 집안은 그 대표적 예이다. 다른 일부는 이탈하였으니, 대조영집단과 말갈족의 乞四比羽집단은 東走를 택하였다. 이 때 거란은 남으로 하북성지역으로 진격하는 등 당에 대한 공격에 주력하고 있었고 당은 이를 저지하기에 급급하였기 때문에, 이들 집단의 동주는 상대적으로 용이하였다. 그런데 이 때 대조영집단이 영주를 벗어나 바로 동만주로 가서 나라를 세웠던 것은 아니다. 중간에 어느 곳에서 일정 기간 머물며 주변지역을 경략하면서 자체의 힘을 배양하며 정세를 관망하고 있었다.

한편 이진충이 이끈 거란군은 신속히 북중국의 하북지역으로 남진하였다. 그 해 9월 이진충이 죽자 孫萬榮이 무리를 이끌고 당군을 격파하며 크게 세력을 떨쳤다. 수세에 몰린 당은 돌궐에 물자를 제공하며 서로 밀약을 맺어 거란을 양면에서 협공하는 방책을 도모하였고, 돌궐이 이에 응하여 거란의 배후를 기습하였다. 이에 정세는 크게 역전되었다. 거란은 본거지를 돌궐에게 유린당하였고 거란의 동맹군이었던 奚族이 돌궐에 투항하였다. 당군의 방어망이 강화되자 거란군은 궁지에 몰려 마침내 당군에 격파되어 697년 6월 진압되었다. 이 무렵 거란 장수였던 李楷固·駱武整 등이 당에 항복하였다.²²⁾

당은 영주지방을 벗어나 동쪽으로 달아나 형세를 관망하고 있던 대조영집단과 걸사비우집단에 대한 회유의 손길을 뻗쳐, 대조영의 아버지라는 乞乞仲象에게 震國공을, 걸사비우에게는 許國공의 작위를 주면서, 다시 이들 집단을 당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려 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이를 거부하자 당은 거란 항장 출신의 이해고를 장수로 한 토벌군을 보내어 공격해왔다. 이 무렵 걸걸중상이 병사하고 대조영이 그 집단의 수장이 되었다. 이해고가 이끈 당군의 공격에 맞서 말갈족의 걸사비우집단이 먼저 교전을 벌였으나 패배하여 걸사비우가 전사하였다. 대조영은 당군의 예봉을 피하여 일단 더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걸사비우집단의 잔여세력들을 규합하였다. 당군이 계속 추격해오

22) 이진충의 난의 전개과정은 宋基豪, 〈大祚榮의 出自와 渤海의 건국과정〉(《아시아文化》7, 翰林大, 1991) 참조.

자 대조영은 이를 天門嶺에서 맞아 싸워 대파하였다. 그리고 계속 동진하여 동만주 牧丹江 유역에 자리잡아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 나갔다. 당은 천문령 전투 이후 더 이상의 추격은 포기하였다. 이는 영주지방을 돌궐이 유린하여 북중국에서 만주지역으로 이어지는 육로가 크게 위협을 받고 있었고 요동지역에 대한 보급도 해로에 의존해야 할 형편이어서, 대조영집단에 대한 더 이상의 공격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²³⁾ 당은 699년 요동에 두었던 안동도호부를 安東都督府로 격하시킨 뒤, 보장왕의 아들 高德武를 안동도독으로 삼아 이 지역 고구려유민을 통치하게 하였다.²⁴⁾ 이어서 700년대초 다시 안동도독부를 도호부로 격상시켰으나 幽州지역으로 그 치소를 옮긴 것에서 알 수 있듯이,²⁵⁾ 당의 동북아 방면에 대한 정책은 소극적인 방어 위주로 전환하였다.

이와 같은 대조영집단의 동주와 건국과정과 관련하여 그 동안 논란이 있어왔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이 있다. 먼저 대조영집단이 영주에서 탈주하여 일시 정착한 지역이 어느 곳인가 하는 점이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천문령전투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조영집단과 이해고의 당군이 싸웠던 지점인 천문령은 북류 송화강의 지류인 揮發河와 渾河의 분수령 지대인 哈達嶺으로 여겨진다.²⁶⁾ 자연 천문령전투 이전에는 대조영집단은 그 서쪽의 어느 곳에 있었던 것이 된다. 근래 대조영집단의 일차 정착지를 瀋陽으로 비정하거나,²⁷⁾ 太子河유역으로 여기는 설이²⁸⁾ 제기되었다. 그 주요 논거로 발해 멸망 후 발해인을 요동으로 강제 이주시킬 것을 제안한 遼의 耶律羽之가 태자하유역을 발해인의 ‘고향’이라고 표현한 기사와,²⁹⁾ 《五代會要》에서 걸걸중상과 걸사비우가 ‘走保遼東 分王高麗故地’하였다는 기사를 들고 있다.³⁰⁾ 당시 영주와 요동의 안동도호부의 치소인 新城

23) 《舊唐書》권 199 下, 列傳 149 下, 北狄 渤海靺鞨.

24) 《舊唐書》권 199 上, 列傳 149 上, 東夷 高麗.

25) 津田左右吉, 〈安東都護府考〉(《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1, 1915).

26) 譚其驤 主編, 《中國歷史地圖集》(釋文匯編 東北卷, 中央民族學院出版社, 1988), 126 ~ 127쪽.

27) 楊保隆, 〈新舊唐書渤海傳考辨〉(《學習與探索》1984-2).

28) 宋基豪, 앞의 글.

林相先, 〈渤海 建國 參與集團의 研究〉(《國史館論叢》42, 國史編纂委員會, 1993).

29) 《遼史》권 75, 列傳 5, 耶律羽之.

(지금의 撫順)간의 교통로는 세 갈래가 있었다. 우선 영주-燕郡-懷遠-通定鎭(지금의 신민현 高台山)-신성으로 이어지는 北道와, 영주-연군-회원-險瀆-요동성(遼陽)-蓋牟(지금의 蘇家屯)-신성으로 이어지는 中道, 그리고 영주-연군-汝羅守捉-遼隊-요동성-개모-신성의 南道가 있었다.³¹⁾ 그런데 696년 가을 거란군이 안동도호부성을 공격해오자, 안동도호 裴玄珪가 이를 저지하였으며,³²⁾ 이듬해 초 요동주도독 高仇須에 의해 거란의 공격군은 격파되었다.³³⁾ 이어 그 해 5월 고구려유민인 高文·高慈 부자가 당군을 이끌고 거란군과 싸우다 요동의 磨米城에서 전사하였다.³⁴⁾ 또한 같은 해에 당의 中郎將 薛訥이 이끄는 5만의 병단이 해로로 요동에 파견되었다.³⁵⁾ 실제 5만이 아닐지라도 이 때 상당한 병력을 투입하여 요동지역의 당군을 보강한 것은 사실로 여겨진다. 이렇듯 신성과 요동성에 당군이 버티고 있는 당시 상황으로 보아 대조영집단이 태자하유역으로 가서 그 곳에 자리잡기는 불가능한 것이다.

요동성은 바로 태자하 하류유역에 있다. 그리고 거란군과 당군이 영주에서 요동에 이르는 街道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대조영집단이 바로 그 길을 택하여 동주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대조영집단이 태자하유역에 있었다면 당연히 안동도호부의 군대가 동원되었을 것인데도, 대조영 등에 대한 공격이 서쪽에서 온 이해고의 군대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볼 때도 그러하다. 전문령전투 이전에 대조영과 결사비우집단은 당과 거란의 전투 와중에서 비껴서서, 영주에서 요동으로 이어지는 가도의 북쪽 요서지역 어느 곳에 머물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오대회요》의 기사는 東走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사실을 시기별로 서술하였다기보다는, 발해의 건국과정에 대한 개괄적 언급을 한 것일 뿐이라고 여겨진다. 굳이 《오대회요》의 기록처럼 대

30) 《五代會要》권 30, 渤海.

31) 王綿厚·李健才, 《東北古代交通》(1990), 138~152쪽.

32) 《舊唐書》권 59, 列傳 9, 許欽寂.

《資治通鑑》권 205, 唐紀 21, 則天武后 萬歲通天 원년 9월.

33) 《陳白玉文集》권 4, 爲建安王破賊表.

34) 《高慈墓誌銘》(《譯註 韓國古代金石文》I, 韓國古代社會研究所), 511쪽.

35) 《陳白玉文集》권 10, 爲建安王與遼東書.

조영집단이 요동에 왔다고 볼 경우에는 안동도호부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개원·창도 방면 쪽의 요동 북부지역에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³⁶⁾

다음은 발해의 건국 연대에 관한 논란이다. 《舊唐書》에서는 발해가 聖曆(698~700) 연간에 건국하였다고 하였다. 발해가 존립하고 있을 당시에 편찬된 일본의 《類聚國史》에서는 698년에 건국하였다고 하여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고 있다.³⁷⁾ 《유취국사》의 이 기사는 발해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 여겨지며, 발해 조정의 공식적 견해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면 이 때 건국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698년에 대조영집단이 목단강유역의 東牟山지역에 정착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천문령전투가 있었던 시기가 그보다 앞선 것이었다는 점이 확실하여야 한다. 천문령전투는 거란 장수였던 이해고가 당에 항복한 697년 6월 이후부터 ‘거란 餘黨’을 토벌하고 장안에 개선한 700년 6월³⁸⁾ 사이에 있었다. 이해고는 대조영집단과의 천문령전투에서는 패배하였고 거란 여당 토벌전에서는 승리하여 700년 개선하였던 셈이 된다. 그러면 이 두 전투는 별개의 작전으로, 이해고는 두 차례 출정하였던 것일까. 이는 시간적으로나 거란 항장 출신이었던 이해고의 처지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다. 그는 거란 여당에 대한 토벌전의 일환으로 대조영집단을 공격하였던 것이다. 비록 천문령전투에서는 패배하였지만 걸사비우집단을 격파하였고 그 밖의 거란 잔당들에 대한 작전에서 성공하였기 때문에 개선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³⁹⁾ 대조영과 걸사비우집단도 이진충의 난 때 당의 지배에서 벗어나 동주하였으므로 당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거란 餘黨’이라고 간주하였을 수 있다. 그리고 이해고의 대조영집단에 대한 추격전은 영주 방면 등 요서지역의 거

36) 宋基豪, 《渤海政治史研究》(一潮閣, 1995), 65쪽.

37) 《類聚國史》권 193, 殊俗部 渤海 上.

38) 《舊唐書》권 89, 列傳 39, 狄人傑.

39) 池内宏, 〈渤海の建國者について〉(《東洋學報》5-1, 1914; 《滿鮮史研究》中世篇 1, 岡書院, 1993).

松井等, 〈契丹勃興史〉(《滿鮮地理歴史研究報告》1, 1915).

盧泰敦, 앞의 글(1981b).

란족들에 대한 토벌전을 행한 후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순리적이라고 여겨진다.

영주 방면은 거란족의 본거지와 접해 있고 장성 이남의 당의 본토와 요동을 잇는 길목이다. 이 지역을 먼저 평정하지 않고 멀리 요동지역에까지 대조영 집단을 추격해갔다는 것은 역시 전략상으로 무리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해고는 요서지역의 거란 여당들을 토벌·회유한 뒤에 그 여세를 몰아 대조영과 결사비우집단을 공격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천문령전투는 670년 6월에서 그리 멀지않은 시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그러면 천문령전투 이전인 668년에 발해가 건국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아마도 대조영이 이 때 ‘震國公’ 겠겠중상에 이어 집단의 통수권자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결사비우의 전사 후 그 집단까지 아울러 東走하였던 무리들 전체의 통수권자로 취임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발해 건국 후 대조영이 震(振)國王을 칭했던 것도⁴⁰⁾ 이와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발해국의 실질적 건국은 목단강유역에 자리잡은 뒤인 700년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은 발해의 초기 도읍지인 ‘舊國’의 위치문제이다. 이 구국에 대하여 그동안 둔화현의 평지성인 傲東城으로 비정해 왔으나, 오동성은 성의 짜임새나 그 곳에서 출토된 유물로 볼 때 발해의 도성으로 보기 어려우며 목단강 상류쪽의 永勝유적이 초기 도읍지로 여겨진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⁴¹⁾ 대조영 집단이 처음 자리잡았던 ‘東牟山’은 지금의 敦化市 賢儒鄉 城山子村의 성산자산성으로 보고 있다. 이 산성은 목단강의 지류인 대석하를 끼고 있는 해발 600m의 산 위에 구축되어 있다. 이는 “奧婁河를 방어용으로 하고 성을 쌓아 스스로를 지켰다”는 《신당서》발해전의 기사와 부합한다. 이 산성의 동편의 평지에 영승유적이 있다. 이 영승유적과 성산자산성 및 발해 초기의 귀족들의 무덤들이 있는 육정산고분군이 하나의 組를 이루고 있다. 성산자산성은

40) 《舊唐書》권 199 下, 列傳 149 下, 北狄 渤海靺鞨.

41) 방학봉, 〈발해 초기의 수도에 대한 몇가지 문제〉(《발해사연구》 1, 1991).

——, 〈발해수도의 변화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발해사연구》 3, 1992).

리강 저·방학봉 역, 〈발해 수도 오동성에 대한 의문〉(《발해사연구》 2, 1991).

宋基豪, 앞의 책, 80~84쪽.

비상시의 방어처이지만 일단 국가를 건설한 뒤에는 평상시의 거주지는 아니었다. 아직 본격적인 발굴이 행해지지 않았지만 영승유적이 초기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盧泰敦〉

2. 발해의 발전

1) 대외적 팽창

목단강유역에 자리잡은 뒤 대조영은 우선적으로 당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하였다. 건국 직후 돌궐과 신라에 사신을 보내어 통교하였던 것도 그러한 목적에서였다.

한편 당은 거란족의 봉기를 진압한 뒤에도 돌궐의 세력이 요서지방을 압박하고 있어 우선 그에 대처해야 했으므로, 동북아지역에 깊숙이 개입할 여력이 없었다. 그러던 중 705년 則天武后가 죽고 中宗이 즉위함을 계기로 하여 사신을 보내어 대조영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를 회유하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는 중국의 전통적인 以夷制夷策이나 遠交近攻策의 입장에서, 발해를 요서지역의 돌궐·거란 등에 대한 공략에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였다. 대조영도 그의 둘째 아들인 大門藝를 당에 보내어 이에 응하는 자세를 보였다. 대조영으로서의 당과의 충돌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였고, 나아가 唐朝의 권위를 발해의 건국 사업에 활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713년에는 당이 郎將 崔忻을 파견하여 대조영을 “渤海郡王 忽汗州都督”으로 책봉하였다. 이듬해 최흔이 귀국길에 요동반도 남단의 여순 황금산에 남긴 石刻이 오늘날 전해지고 있다. 713년 당의 사신파견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던 것은 그 전해에 당군이 요서지역에서 奚族에게 대패한 사건이었다고 여겨진다.¹⁾ 당시 요서지역의 거란족과 해족 등은 돌궐의 세력 아래 복속되

1) 《조선전사》 5—중세편 발해 및 후기신라사—(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9), 29쪽.

어 있었는데, 당이 재차 이들에 대한 지배력을 확립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였다. 이에 당은 다시 돌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 동쪽에서 한창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발해에 주목하여, 사신을 파견하여 정식 책봉을 하였던 것이다. 이후 대조영은 ‘渤海’를 정식 국호로 삼았고, 발해와 당 사이에 교역이 열리고 발해의 사절이 당에 빈번히 왕래하게 되었다. 그러나 발해는 714년 4월 당의 거란에 대한 공격에 가담하지 않는 등 어떠한 국제적 분쟁에도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 그러한 대외적 안정책은 발해의 성장에 유리한 조건이 되어 동북아시아에서 급속한 세력확대를 도모해 나갈 수 있었다.

719년 高王 대조영이 죽은 뒤 그의 아들 大武藝가 왕위에 올라 武王이 되었다. 이 때 연호를 仁安이라 하고 국가적인 체제를 확충해 나갔으며 또한 영토를 크게 확장하였다. 당시 발해의 영토 확장 범위는 727년 일본과 처음 통교하면서 보낸 국서에 잘 나타나 있다.

…무예가 외람되이 列國을 주관하고 諸蕃을 거느려, 고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遺俗을 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어 길이 막히고 海路가 아득하여 지금껏 소식을 통하지 못하여 길흉을 묻지 못하였습니다. 오늘에야 비로소 옛날의 예에 맞추어 善隣을 도모코자 사신으로 寧遠將軍 郎將 高仁義…등 24인을 狀과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續日本紀》권 10, 聖武天皇 神龜 5년 정월 갑인).

여기에서 ‘열국을 주관하고 제번을 거느려,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유속을 잇게 되었다’고 한 것은 발해가 雄國이 되었음을 과시하려는 다소 修辭의인 표현이겠지만, 이 무렵 발해가 중동부 만주지역의 고구려유민과 다수의 말갈 부족들을 복속시키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진다.

구체적으로 당시 발해의 세력 판도를 살펴보면, 8세기초 발해에 복속된 말갈족에는 隋代의 말갈 7부 가운데 ‘고구려 멸망 이후 분산 미약해져 발해의 편호가 되었다’는 백돌·안거골·호실부 등이 포괄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속말부 출신의 걸사비우집단이 발해 건국에 참여하였고, 백산부의 거주지는 발해 건국지가 되었던 만큼 속말부와 백산부의 잔여세력들도 이미 발해에 귀속되었다고 보여진다. 이외에 후수부와 불열부 및 고구려멸망 이후 두

각을 나타내었던 鐵利部·越喜部 등 동류 송화강 중하류지역과 흑룡강 하류 등지에 있던 말갈족은 당에 조공사를 보내는 등 독자적인 활동을 하면서, 발해의 세력권 밖에 존재하였다. 위의 국서에서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였다고 했는데, 옛 고구려인들의 거주지역 확보와 관련하여 다음 사실이 유의된다. 즉 신라는 성덕왕 17년(718)에 漢山州 관내에 성들을 수축하였으며, 3년 후에 다시 何瑟羅道의 人丁을 동원하여 북쪽 경계에 장성을 쌓았다.²⁾ 이렇게 평양 방면과 동해안의 함흥 방면의 방어체계를 강화한 일련의 조치는 발해의 남진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그리고 무왕 14년(732) 당과의 전쟁에서 당의 登州를 공격한 발해의 해군은 압록강을 통해 출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720년대에는 발해의 세력이 압록강 중류유역과 한반도 북단까지 뻗었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자연 그 북쪽인 두만강 유역과 북류 송화강유역 및 휘발하유역도 발해의 세력권 아래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렇듯 건국 후 불과 20여 년 만에 동북아지역의 새로운 강자로 발해가 두각을 나타내며 팽창해나가자, 인접한 당과 신라는 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었다.

한편 그 동안 돌궐에 굴종해 있던 거란족과 해족이 715년 이탈하여 당에 귀부했으며³⁾, 716년에는 목척가한이 전사한 후 돌궐 내부에서는 일시 혼란이 일어났다.⁴⁾ 당은 이러한 유리한 계기를 이용하여 요서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717년 영주 유성현에 영주도독부를 다시 설치하였다.⁵⁾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지역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여 발해를 압박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취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당은 발해의 배후에 있는 흑수말갈을 포섭하여 726년 그 지역에 黑水府를 설치하고 당의 관리를 파견하여 흑수말갈족들을 감독·조종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종래 흑수말갈은 발해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발해와의 관계를 고려하

2) 《三國史記》권 8, 新羅本紀 8, 성덕왕 17년 및 20년.

3) 《舊唐書》권 199 下, 列傳 149 下, 北狄 契丹.

4) 《舊唐書》권 194 上, 列傳 144 上, 突厥 上.

5) 《舊唐書》권 39, 志 19, 地理 2, 河北道 營州上都督府.

여 발해의 양해를 얻은 뒤에 대외적 교섭을 하였다. 돌궐과 교류하여 흑수말갈에 돌궐의 관리인 吐屯을 두었을 때에도 사전에 발해의 승락을 받았었다.⁶⁾ 그런데 이번에는 발해와 사전 상의없이 독자적으로 당과 교류하며 그 관부를 설치하게 하였던 것이다. 당과 흑수말갈이 연결된다면 그것은 앞뒤에서 발해를 압박하는 형세가 되고, 만약 이를 용인하게 되면 발해의 세력 아래 있는 다른 말갈 부족들도 같은 형태를 취해 당의 영향권 안으로 귀속해 갈 수 있다. 이는 발해의 존립에 치명적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이에 무왕은 흑수말갈에 대한 공격을 단행키로 하였다.

흑수말갈에 대한 원정은 당과의 전쟁도 불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이는 또한 발해의 국운을 걸어야 하는 중대사안이다. 이에 대해 발해 조정 내에서 반대 의견이 제기되었는데 그 대표가 무왕의 동생인 大門藝였다. 그는 일찍이 당에 파견되어 오랫동안 당에 거주한 바 있어, 당의 국력에 압도되었고 당문화에 깊은 영향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발해보다 몇 배로 강하였던 고구려가 당과의 전쟁으로 망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당과의 전쟁을 초래할 흑수부에 대한 공격을 반대하였다. 무왕은 반대 의견을 일축하고 대문예를 원정 군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대문예가 국경에 이르러 다시 재고할 것을 요청하자, 무왕은 그를 파면하고 사령관을 교체하여 흑수말갈에 대한 공격을 단행하였다. 이 원정에서 흑수말갈을 완전히 복속시키지는 못하였으나 흑수말갈과 당과의 연결을 차단하고, 나아가 여타의 말갈 부족들에 대하여 당의 영향력이 더 이상 깊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흑수부에 대한 공격으로 당과의 관계가 긴장되자, 있을 지도 모르는 당의 공격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아울러 발해의 남쪽 국경지대에 성을 쌓는 등의 움직임을 보여온 신라와 당이 동맹하여 공격해 올 경우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흑수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 이듬해인 727년에 처음으로 일본에 사신을 보내어 통교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것을 요청하였던 것도 그럴 경우에 대비하여 신라를 견제하기 위한 방략에서였다.⁷⁾ 당과

6) 《舊唐書》권 199 下, 列傳 149 下, 渤海靺鞨.

7) 酒寄雅志, 〈八世紀における日本の外交と東アジアの情勢—渤海との關係を中心として—〉(《國史學》103, 1977).

의 긴장된 관계에 전쟁의 불씨를 당긴 구체적 계기는 대문에 문제였다.

726년 이후 발해의 조정에서 물리게 된 대문예는 당으로 망명하였다. 당의 조정은 그를 우대하며 발해의 내부분열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그를 이용하려 하였다. 이런 당의 동향에 대해 무왕은 대문예의 송환을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였다. 당이 대문예의 송환을 거부하자 무왕은 732년 해군을 보내어 당의 登州를 공격하였다. 이에 양국은 교전을 벌이게 되었다. 이런 일련의 양국관계의 진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던 신라는 당과 동맹을 맺어 양국이 발해를 협격하는 방안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신라로서는 신흥 발해의 위협을 막고 나아가 7세기 후반처럼 또 한 차례의 영토팽창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리고 676년 이후 대동강 이남의 땅을 신라가 차지한 것을 승인하지 않아 당과 이면적 대립이 지속되어 오고 있는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였으므로 이 동맹에 적극적이었다. 이에 당은 733년 대문예를 앞장 세워 발해 원정군을 동북방으로 진공시켰다. 신라는 남으로부터 발해를 공격해갔다. 대문예와 葛福順 등이 이끈 당군의 진격은 지지부진하였고, 오히려 발해군이 산해관 근처의 馬都山지역을 공격해오자 당의 平盧先鋒 烏承玢가 방어에 급급하다가 흑수말갈과 室韋군의 지원을 받아 간신히 이를 격퇴하였다.⁸⁾ 신라군은 발해군의 저항과 추위로 다수의 凍死者를 내고 퇴각하였다.

당과 신라의 침공을 격퇴한 후, 발해는 다시 당과의 관계개선에 노력하였다. 만약 당이 더 이상 동북아 방면으로 팽창해오지 않는다면, 당과 지속적으로 대결하는 것이 발해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이익이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특히 733년 毗伽可汗이 사망하자 내부 분란이 심해져 돌궐의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고 이에 따라 당을 측면에서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당과 계속 대결을 벌인다는 것은 발해로서는 큰 부담이었다. 그리고 신라와의 대결에서 일본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도 733년의 戰役에서 경험한 바였다. 당도 발해에 대한 공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체험하고, 동북아지역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현상유

8) 이 때 발해군은 해로로 마도산지역을 공격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古畑徹, 〈張九齡作‘勅渤海郡王大武藝書’と唐渤海紛爭の終結—第二・三・四首の作成年代を中心として—〉, 《東洋史論集》3, 1977).

지책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어 발해와 관계 개선을 꾀하였다. 이에 양국간에는 국교가 재개되었는데 737년 무왕이 죽고 문왕이 즉위한 뒤 발해와 당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졌다.

한편 당은 735년에 신라가 대동강 이남지역을 차지한 것을 정식으로 승인하였다. 이후 당은 신라와 발해가 서로 대립하도록 유도하면서, 현상유지에 힘을 기울였다. 신라는 대동강 이남의 평양과 황해도지역의 군현화에 주력하였고 더 이상의 북진은 꾀하지 않았다. 그 결과 7세기 후반 이후 고구려의 멸망과 신라의 한반도 통일 및 발해의 건국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유동하던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보다 안정된 구도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 구도는 10세기초까지 이어졌다.

한편 당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신라의 위협이 사라지자 발해는 그 배후에 있는 미복속 말갈 부족들에 대해 압박을 가하였다. 철리부·불열부·월희부·흑수부 등이 그 대상이었다. 이들 부족들은 8세기 초반 당에 빈번하게 조공하면서 독자적 움직임을 보여 왔고, 당과 발해간의 전쟁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도 하였던 집단들이었다. 이들을 제압하는 일은 발해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일이었는데, 이제 당의 세력이 후퇴하자 이를 적극 추진하였다. 이들 부족들에 대한 발해의 공격을 구체적으로 전하는 기록은 없다. 단 이들 부족들의 당에 대한 조공이 불열부와 월희부는 741년, 철리부는 740년을 경계로 하여 두절되었다. 그 뒤 802년에 월희부가, 841년에 불열부와 철리부가 각각 한 차례씩 당에 조공을 한 사실이 전해질 뿐이다. 철리부에 의한 그 전과 같은 지속적인 조공은 발해 멸망 후에 다시 나타나게 된다. 이런 면은 곧 이들 집단이 8세기 중반에 발해의 세력권으로 귀속되었음을 의미한다.⁹⁾ 746년 발해인과 철리부인 천백여 명이 일본에 건너간 일이 있었다.¹⁰⁾ 이는 철리부의 대당 조공의 두절과 연관되는 것으로서, 발해가 철리부를 병합함에 따라 생겼던 현상으로 여겨진다.¹¹⁾ 단 흑수부의 경우 740년 이후 여러 차례 당에 조공한 기사가 보여 이 시기에 발해에 완전 복속되었던 것 같지는 않다.

9) 《新唐書》권 219, 列傳 144, 北狄 黑水靺鞨.

10) 《續日本紀》권 16, 聖武天皇 天平 18년.

11) 鳥山喜一, 《渤海史上の諸問題》(風間書房, 1968), 237~240쪽.

이로써 8세기 중반에 이르러 발해는 그 영토가 송화강 하류에까지 미치게 되어, 건국 이래로 추구해오던 대외 팽창정책이 일단락을 짓게 되었다. 발해가 한번 더 대외적 팽창을 한 것은 9세기 전반 宣王代였다.

2) 국가체제의 정비

당 및 신라와의 전쟁이 끝나고 대외적인 안정을 회복한 이후 발해는 대내적인 체제정비에 주력하였다. 무왕을 이은 文王의 장기간에 걸친 재위기 간(737~793) 중 발해의 제도와 문물이 크게 정비되었다. 문왕은 즉위 직후 儒家思想에 입각하여 황제를 정점으로 한 집권적 국가체제를 이끌어 나가는 각종 의례와 법령과 규범을 담아놓은 당의 開元禮를 수입하였으며, 당의 문물 수용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문왕의 치세 기간 중 발해는 당에 49차례의 사신을 파견하였고, 당도 4차례나 문왕을 책봉하는 등 양국관계가 긴밀하였다. 당의 문물은 발해가 그 국가체제를 정비해 나가는 데 주요 典範이 되었다. 《新唐書》 발해전에 전하는 바와 같은 발해의 중앙 및 지방제도는 국초부터 마련되기 시작하였겠지만, 문왕대에 이르러 그 틀이 대부분 확립되었다.

문왕대에 이루어진 제도정비를 살펴보면, 먼저 지방제도로써 府州縣制와 5京制를 들 수 있다. 부는 주의 상위 기관으로 기능하였는데 이는 獨奏州의 존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당시 涑州 등 3개의 독주주는 다른 62개의 일반주와는 달리 왕에게 바로 상주할 수 있는 예외적인 단위로 설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발해 초기에는 지방관으로서 도독과 刺史가 있었으나, 양자는 상하統屬關係에 있었던 것 같지 않다. 발해 지방관의 구체적 명칭은 739년 일본에 파견한 사신인 胥要德이 若忽州都督이었다는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도독은 《신당서》 발해전에서 전하는 부—주—현체계에서 부의 장관이다. 그런데 약홀주의 장을 도독이라고 하였음은 곧 이 당시까지 아직 부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그럴 경우 도독과 자사는 일본의 《類聚國史》 殊俗部 渤海條에 “館驛이 없으며…大村의 장을 도독, 次村의 장을 자사라 한다”고 한 것처럼, 州 중에 큰 주의 장을 도독이라 하였던 것 같다. 도독과 자사는 상하

통속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병렬적인 존재로서 각각 중앙의 조정에 연결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발해에서 아직 부-주-현제도가 정립되지 못하였음을 뜻한다.

758년에 일본에 파견한 사신인 楊承慶은 行木底州刺史였고, 759년에 파견된 高南申은 玄菟州刺史였다. 이들이 띠고 있는 관직명에 보이는 주의 명칭은 두 자로 되어 있어 739년의 약홀주도독의 그것과 같다. 그런데 《신당서》 발해전에 의하면 전국의 주의 명칭은 모두 한 자로 되어 있어 이와 차이를 보인다. 이는 단지 명칭상의 차이만이 아니라 아직 부와 주간의 상하 통속관계와 같은 행정적 체계화가 확립되지 못한 상태임을 나타내준다고 생각된다. 《신당서》 발해전이 전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어느 시기에 주의 명칭이 전국에 걸쳐 일괄적으로 한 자로 정리될 때, 부-주-현제의 행정체제도 함께 정비되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구체적으로 776년에 일본에 파견한 사신이 南海府의 吐號浦에서 출발하였다는 기록에서¹²⁾ 부의 존재가 확인된다. 남해부는 南京이었으니 남경의 존재는 곧 五方 개념에 따른 5경제가 이 시기에 성립되었음을 말해준다. 주 아래의 현의 존재는 구체적인 기록상으로는 849년 永寧縣丞 王文矩를 일본에 사신으로 파견한 데서 확인되나,¹³⁾ 그 전에 이미 존재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대체로 남경 남해부의 존재가 확인되는 776년 무렵에는 부주현제와 5경제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것이 5경·15부·62주 형태로 된 것은 9세기초 선왕대의 팽창을 거친 뒤였다.

한편 문왕대에는 수 차례의 천도가 행해졌다. 《신당서》 지리지에 의하면 顯州, 즉 中京 顯德府가 당의 天寶 연간(742~756)에 발해의 수도였다고 한다. 《武經總要》에서도 현주가 천보 이전에 발해의 수도였다고 하였고,¹⁴⁾ 和龍縣 서고성자의 발해시기의 성의 유적으로 보아 천도는 사실로 여겨진다. 이 곳은 첫 수도인 「舊國」 즉 영승지역보다 기후가 따뜻하며 기름진 넓은 들을

12) 《續日本紀》권 34, 光仁天皇 寶龜 8년 정월.

13) 《續日本後紀》권 18, 仁明天皇 嘉祥 원년 12월 을묘 및 권 19, 仁明天皇 嘉祥 2년 3월 무진.

14) 《武經總要》前集 권 16 下.

끼고 있고 물산이 풍부하였다. 이 지역의 현주의 포, 盧城의 쌀, 位城의 철 등은 발해의 특산물로 유명하였다.¹⁵⁾ 구체적으로 언제 이곳에 천도하였으며, 얼마간 수도였는지는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¹⁶⁾ 문왕은 천보말에 북쪽의 상경지역으로 다시 천도하였다. 이 때 천도한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된 기록이 전해지지 않으나, 천도한 시점이 주목된다.

천보 14년(755) 11월에 당에서 安祿山의 난이 일어났고 이듬해 정월 안녹산이 황제라 칭했으며, 사천지역으로 피난갔던 당의 현종이 퇴위하고 숙종이 7월에 즉위하여 연호를 至德이라 하였다. 안녹산은 반란을 일으키기 이전에 당의 平盧節度使로서 발해·흑수·거란·해 등을 담당하는 四府經略使를 겸하고 있었다. 그의 반란에 따른 당의 격렬한 내란 상황에 대해 발해로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난의 여파는 발해에 직접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756년 가을 당의 平盧留後事 徐歸道가 발해에 사신을 보내어 기병 4만을 동원하여 안녹산을 칠 것을 요청하였다. 발해는 이에 응하지 않고 사신을 돌려보내지 않았다. 서귀도는 그 해 말 안녹산측에 붙었다. 이어 서귀도를 죽이고 權知平盧節度를 자칭한 王玄志도 사신을 보내어 당의 사정을 말하였는데, 발해는 이를 믿지 않고 따로 사신을 보내어 정세를 탐문하게 하였다.¹⁷⁾ 한편 발해는 758년과 759년에 楊承慶과 高南申을 각각 일본에 사신으로 파견하였는데, 그 때 양인의 관직이 행목저주자사와 현도주자사였다. 목저주와 현도주는 각각 혼하와 蘇子河 유역에 있어 요동평야로 나아가는 발해의 서남쪽 관문에 해당한다. 이 지역을 담당하는 관리를 파견한 것은 안녹산의 난에 대한 정보에 밝았던 이들을 보내어 난의 추이를 일본에 전하여 일본측의 반응을 탐색하고, 난의 여파가 밀려올 때를 대비한 대책 마련에 활용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소식에 접한 일본 조정은 난의 여파가 미칠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였다.¹⁸⁾ 이런 면들은 발해가 안녹산의 난에 따른 안보에 상당히

15) 《新唐書》 권 219, 列傳 144, 北狄 渤海.

16) 이곳으로 천도한 시기가 무왕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宋基豪, 《渤海政治史研究》, 一潮閣, 1995, 97쪽).

17) 《續日本紀》 권 21, 淳仁天皇 天平寶字 2년 12월 무신.

18) 일본 조정이 758년에 이어 759~761·763년에 거듭 발해에 사신을 파견하였던 것도 그러한 움직임의 일환이었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하였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천보말에—아마도 756년 전반기에—있었던 상경으로의 천도 역시 이와 연관된 것이라고 보여진다.¹⁹⁾ 상경지역은 중경보다 북쪽에 있고 주변에 산악이 둘러쳐져 있어 서쪽으로부터의 침공에 대한 방어에 유리하며, 넓은 평야를 안고 있어 도읍으로 적합한 지역이다. 그리고 앞서 말한 바처럼 8세기 중반 송화강 하류의 철리부 등의 말갈 부족들을 복속시켰기 때문에 그 배후지의 안전은 확보되어 있었다.

문왕대의 중반인 785년 이후에 상경에서 다시 두만강 하류 유역인 璦春의 八連城인 東京 龍原府로 천도하였다. 이어 794년에 문왕이 죽고 大元義가 즉위하였으나 곧 ‘國人’들에게 피살되었고, 成王이 왕위에 오른 뒤 다시 상경으로 천도하였다. 상경은 그 뒤 926년 발해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수도가 되었다. 천도는 한 국가에 있어서 모든 면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 이렇듯 잦은 천도를 행하였다는 것은 주목되는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이 배경에 대하여는 분명히 밝혀져 있지 않다.

아무튼 문왕대에 부주현제와 5경제 등이 정비되었는데, 이처럼 관료조직이 체계화되었다는 것은 곧 중앙집권력과 왕권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진전을 뒷받침하였던 당시의 이념적 기반의 하나는 유교였다. 政堂省 아래의 6部の 명칭이 유교적 덕목을 딴 忠·仁·義·智·禮·信이었다는 점은 그러한 면을 웅변해준다. 胄子監이 설치되어 있어 유교 경전에 대한 교육과 인재 양성에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또한 발해는 국초 이래로 당에 유학생을 보냈는데, 이들이 귀국한 후 유학 보급에 큰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불교 또한 왕실과 밀착하여 왕권의 강화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던 것 같다. 문왕의 시호가 ‘大興寶曆孝感金輪聖法大王’이었는데 大興과 寶曆은 문왕대의 연호였고, 金輪聖法은 불교적 의미를 띤 것으로서 轉輪聖王의 이념을 상징한다. 이로써 문왕은 정복군주로서 천하에 正法을 시행하는 이상적인 군주임을 자任한 것을 알 수 있다.²⁰⁾ 아울러 불교를 독실히 신봉하였음과 함께 당시

19) 林相先, 〈渤海의 遷都에 대한 考察〉(《清溪史學》 5,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8).
방학봉, 〈발해는 무엇 때문에 네차례나 수도를 옮겼는가〉(《白山學報》 39, 1992).
宋基豪, 앞의 책, 99쪽.

20) 宋基豪, 위의 책, 123~125쪽.

발해의 불교계 또한 왕의 권위를 높이고 이를 신성화하는 데 충실했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8세기 후반 관료조직이 확충되고 왕권이 강화되자, 이를 바탕으로 문왕은 황제를 뜻하는 皇上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으며,²¹⁾ 771년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발해는 일본을 舅甥關係라 하였고 스스로 天孫이라 칭하였다.²²⁾ 당시 발해의 중앙관제·지방제도·수도의 도시 구획 등은 일단 외형상 당의 그것을 방불케 하는 매우 세련된 면모를 갖추었다. 신개척지에서 기존의 전통과 제도적 유산의 제약을 상대적으로 덜 받으면서 새로이 국가를 건설해 나갔기 때문에, 당의 문물 제도를 모방하는 작업을 보다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발해의 제도가 외면상 세련되고 정비된 면모를 갖추었다는 것이 반드시 그 제도가 실제 것처럼 일원적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히 발해는 다종족국가로서 종족 및 지역간 발전의 불균등성이 컸던 만큼, 그러한 면이 제도의 운영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것은 발해의 주민구성이 어떠하며 발해국을 이끌어 나갔던 주된 집단이 어떤 족속이었느냐를 파악하는 문제와 연관되는 것이기도 하다.

〈盧泰敦〉

3. 발해국의 주민구성

1) 요·금대의 발해인과 여진인

발해국의 주민구성을 전해주는 발해 존립 당시의 기록은 매우 적다. 그리하여 대조영집단의 出自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 왔다. 이 문제에 접근하

21) 〈貞孝公主墓誌〉(《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Ⅲ, 韓國古代社會研究所, 1992), 460쪽.

현명호, 〈발해 ‘계루군왕’ 칭호에 대하여〉(《역사과학》 1991-1).

宋基豪, 위의 책, 101~105쪽.

22) 《續日本紀》권 32, 光仁天皇 寶龜 3년 2월 을묘.

기 위해서는, 발해국의 멸망 후 그 주민들이 遼와 金の 통치 아래에서 어떤 양태로 존재하였던가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에 관한 기록이 상대적으로 보다 많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요는 발해국을 멸망시킨 후 계속해서 일어나는 발해국 주민들의 저항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발해의 중심지에 설치하였던 東丹國의 왕으로서 요의 태종의 형인 倍와 태종간의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발해의 주민을 대규모로 요동지역에 강제 이주시켰다. 그런데 요동지역으로 옮겨져 요의 지배를 받게 된 옛 발해국의 주민은 ‘渤海人’과 ‘女真人’으로 뚜렷이 구분되었다. 당시 양자는 서로 근접한 곳에 살았고, 생업면에서 요동지역의 여진인도 농업을 행하였고 그 경작 방식이 발해인과 외형상 유사하였는데도, 발해인과 여진인은 요에 의해 뚜렷이 구분되었다. 양자에 대한 요의 지배방식도 차이를 보였다. 요의 영역 내에 강제 이주된 발해인의 대다수는 州縣民으로 편제되었다. 그에 비해 요의 영역 내에 있는 여진인 즉 熟女眞의 경우, 대개 부족 및 부락 단위로 집단적으로 예속되었다. 이들 여진인들은 일정한 조세나 역이 부과되지 않았으며, 전쟁이 있을 때 그 병력이 차출되었고 때때로 특산물을 바쳤으나 일상 생활은 자치에 맡겨졌다. 부족 내에서 재래의 조직과 생활을 유지하면서 그 수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요에 예속되었다. 요의 영역 밖에 있던 生女眞 부족의 경우, 요에 부족 단위로 附庸해 때때로 공납을 바쳤지만 叛服이 無常하였다.¹⁾

발해인과 여진인이 요의 지배 아래에서 그 예속 형태에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던 것은 소수 민족인 거란족이 그 영내의 다수의 여러 족속들을 가능한 한 서로 분리시켜 지배하려는 정책적 의도에서 비롯된 면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장기간에 걸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두 집단간에 사회적 상태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당시 여진인은 부족 및 부락 단위의 결집을 이루는 공동체적 관계가 강하게 남아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이들을 지배하기 위하여 그 족장을 통해 지배하는 간접적 지배 방식을 취하였다. 그에 비해 발해인 사회에서는 이미 계급 분화가 진전되어

1) 盧泰敦, <渤海國의 住民構成과 渤海人의 族源> (《韓國 古代의 國家와 社會》, 一潮閣, 1985) 참조.

서 그러한 공동체적 관계가 해체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주현민으로 편제하여 요의 지방관을 통해 직접 지배하였던 것이다. 요는 발해인을 통치하는 데 漢法을 적용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당시 발해인 사회의 성격이 漢人の 그것과 비슷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을 취하였고, 또 그것이 시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발해인과 한인을 모두 주현민으로 편제하였고, 양자가 일정지역에서 서로 섞여 살았던 경우가 많았음도 그러한 측면을 말해준다.

金代에 들어서도 발해인과 여진인의 구분은 여전하였다. 금이 흥기할 때 阿骨打는 요동 일대의 발해인을 회유하기 위하여 “여진과 발해가 본래 한 집안이었다”고 선전하였으나, 실제로 양자간의 구분과 차별은 뚜렷하였다. 그런 면은 그 뒤까지 지속되었고 실제 생활에서 발해인은 漢人과 비슷하게 처우되었다.²⁾

이처럼 발해국 멸망 후 그 주민들은 발해인과 여진인으로 뚜렷이 구분되어 서로 다른 존재양태를 보였고, 발해인은 요·금대를 통하여 여진인·한인·거란인 등과도 다른 독자적인 하나의 족속 단위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면 같은 발해국의 주민이었던 발해인과 여진인이 언제부터 서로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게 되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일단 그 차이성이 발해국 멸망 이후에 비롯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요에 의해 발해국의 주민이 강제 이주될 때에 주현민으로 편제된 이들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 구분되었다. 이미 발해국 존립 당시부터 양자간에 구분이 있었고 그 차이성에 의거하여 요의 徙民策이 시행되었던 것이다. 《高麗史》에서도 발해지역으로부터 넘어온 이들을 처음부터 발해인과 여타의 女眞系 사람들을 뚜렷이 구분하여 명기하였다. 구체적으로 발해국의 주민이 두 부류의 족속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발해국 존립 당시부터 확인되는 것이다.

2) ‘토인’과 말갈

발해 초기 주민구성의 일면을 전해 주는 기록으로는 다음의 기사가 있다.

2) 위와 같음.

발해는 고려의 故地에 있다.···그 나라는 2천 리에 걸쳐 있다. 館驛이 없고 곳곳에 村里가 있는데 모두 靺鞨부락이다. 그 백성은 말갈이 많고 土人이 적은데, 모두 토인으로 村長을 삼는다. 大村의 장은 都督, 그 다음 촌의 장은 刺史라 하는데, (이들 촌장들을) 그 아래 백성들이 모두 首領이라 부른다. 매우 추워서 토지는 水田에 적합하지 않다. 그 習俗에 자못 글을 알고 있다. 高氏 이래로 조공이 그치지 않는다(《類聚國史》 권 193, 殊俗部, 渤海 上).

이는 발해 초기에 발해를 방문하였던 일본 사신의 견문기에 입각한 것으로 여겨진다.³⁾ 이 기사에서 먼저 ‘土人’의 존재가 주목된다. 토인이란 그 지역의 토착 원주민을 의미한다. 발해국을 주도하는 중심 족속을 토인이라 표현한 것으로 보아, 위 기사의 토대가 되었던 견문기를 썼던 일본 사신은 使行을 가기 전에 발해국에 대해 그 나름대로의 이해와 지식을 지니고 있었던 것 같다. 즉 발해국은 ‘토인’으로 표현된 어느 족속의 나라이며, 그 문물 제도는 어느 정도의 수준일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실제 도착하여 견문해보니 자신이 전에 지녔던 그것과 다른 면모가 있게 되자 이를 特記하여 ‘관역이 없고 곳곳에 촌리가 있는데, 모두 말갈부락이며, 그 백성은 말갈이 많고 토인이 적다’고 서술하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촌의 장은 토인이 되었다는 등의 사실을 통하여, 자신이 종래 지니고 있었던 인식의 한 부분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뒤에 자신이 견문한 바를 기록으로 남길 때에도 발해국을 주도하고 있다고 여겨 왔던 그 족속을 표현해 계속 토인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이 기사를 통하여 발해 초기부터 그 주민은 ‘토인’과 말갈이라는 두 족속으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주민구성에서의 이중성은 발해 말기까지도 이어졌다. 예컨대 南海府와 鐵利府지역의 경우를 보면, 지방관에 의해 직접 통치되는 이들 외에 부족 단위로 자치를 영위하던 말갈족들이 존재하였다. 당시 발해국의 주민들은 《新唐書》발해전에 전하는 바에 의하면 외형상 모두 부-주-현제 아래 귀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요 성과 館驛 및 큰 浦口 등을 중심으로 교통망과 농경이 발달한 지역의 주민은 주현제로 편제되었고, 그 밖의 지역의 주민은 族制的 성격이 강한 부족이나 부락별로 편제되

3) 石井正敏, 〈渤海の日唐間における中繼的位置について〉(《東方學》 51, 1976).

어 수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배되었다. 발해 멸망 후 거란에 의해 요동지역 등으로 강제 이주된 이들은 주로 전자에 속하는 부류들이었는데, 그들이 앞에서 말한 ‘발해인’이었다. 한편 후자는 발해의 지배력의 약화·소멸과 함께 오히려 대외적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벌어나갔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발해의 지배조직에 집단별로 예속되어 자치를 영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곧 주민구성의 이중성이 통치구조의 이중성과 연결되었던 면을 보여준다.⁴⁾

발해 멸망 후에는 발해인과 여진인으로 뚜렷이 구분되는 면을 보였음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발해인에는 高氏·大氏·王氏 등의 右姓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여진인은 말갈족의 후예이므로, 곧 토인=발해인, 말갈=여진인이라는 등식을 성립시켜 볼 수 있다. 물론 발해국의 진전과 함께 말갈족의 일부가 사회적·문화적으로 토인에 동화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발해국의 주민구성에서 ‘토인’이 점하는 비율이 증대되었을 수는 있겠으나, 양자간의 구분과 상이한 위치는 발해 말기까지도 이어졌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토인이란 어떠한 족속을 지칭한 것일까. 위의 인용문에서, “발해는 고려의 故地에 있다” “高氏 이래로 조공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자연 발해국이 일어난 땅의 원주 토착민이란 뜻으로 표현된 토인은 고구려계 사람을 의미한다. 발해가 고구려의 ‘옛 땅’에 있다는 표현을 단지 양국의 영역이 지역적으로 일치함을 나타낸 것일 뿐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발해가 고구려의 계승국이라는 인식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727년 발해 사신이 처음 일본에 간 것을 기술하면서, 《續日本紀》에서 ‘渤海郡은 옛적의 고려국이다’라고 하였음도 동일한 면을 나타낸다.⁵⁾ 그리고 《類聚國史》의 저자인 菅原道眞은 일본에 간 발해 사신을 접대하며 그들과 詩話を 나누며 교류한 바 있다.⁶⁾ 자연 그는 발해국의 성격에 대한 일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그가 위의 기사를 다른 자료에서 인용 전제하였다는 것은,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비단

4) 盧泰敦, 앞의 글 참조.

5) 《續日本紀》권 10, 聖武天皇 神龜 4년 12월 병신.

6) 鳥山喜一, 《渤海史考》(日黑書店, 1914), 206~212쪽.

그 뿐아니라 발해국 존립 당시, 발해국의 성격을 고구려인에 의한 고구려의 계승국이라고 여기는 것은 당시 일본측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곧 토인은 고구려 계통의 족속을 지칭한 것이었다.

그런데 발해국을 주도하였던 집단에는 분명히 말갈족 계통도 포함되어 있었다. 발해의 건국 주체세력이 되었던 이들 가운데에는 乞四比羽 휘하의 말갈족도 있었다. 이들이 토인의 일부가 되었을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대조영집단의 出自에 대한 논란을 감안한다면, ‘토인’의 성격에 대하여 간단히 결론짓기에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다. ‘土人’의 구성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발해국의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이들은 고구려계 사람과 말갈계 사람이었다. 이들은 다시 계통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해볼 수 있다. 먼저 고구려계 사람들(A)은 ① 營州방면에서 동쪽으로 이동해온 집단, ② 고구려국의 서·남부지역에서 동으로 이주해온 집단, ③ 두만강 유역이나 길림지역과 같은 원주지에 계속 머물고 있다가 발해에 편입된 집단, ④ 9세기 전반 발해의 宣王代에 흡수된 요동지역의 고구려계 사람들 등으로 구성되었다. 말갈족(B)은 ① 영주 방면에서 동쪽으로 이동해온 집단, ② 伯咄部·安車骨部·號室部 및 粟末部와 白山部 잔여세력 등 발해 건국 후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발해의 주민으로 편입된 집단, ③ 黑水部·鐵利部·越喜部·拂涅部 등 늦은 시기에 발해에 병합된 집단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⁷⁾

이 중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발해에 병합된 (A)의 ④와 (B)의 ③은 토인의 來源을 검토하는 데에서 일단 제외시켜도 문제는 없을 것이다. 토인은 발해 초기부터 말갈과 구분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발해국 초기의 주민구성이 ‘토인’과 ‘말갈’로 구분되었는데, 토인 집단에는 고구려계 사람들과 말갈계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B)의 ①과 ② 중 어느 집단이 토인과 대비되는 말갈의 중심이 되었을까. 이는 토인과 말갈이 이른 시기부터 구분되어졌고, 발해 건국의 주체세력의 주요 부분을 이룬 것이 (B)의 ①을 포함한 영주방면에서 東走해온 집단이었다

7) 盧泰敦, 앞의 글.

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B)의 ②집단이 위의 《유취국사》의 인용문에서 전하는 ‘말갈’이 되었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A)의 ①②③과 (B)의 ①이 ‘토인’을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부분적인 가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발해국의 주민을 형성한 집단들의 계통별 분류의 측면에서 그러한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면 토인의 주축은 (A)인가 아니면 (B)의 ①인가. 일단 수적인 면에서 (A)집단이 (B)의 ①집단보다 훨씬 많았을 것임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토인 즉 발해인 중에서 발해국 당시 및 멸망 후 활동한 이로서 성명이 알려진 사람들 가운데, 고씨와 대씨가 압도적으로 많다. 요동으로 옮겨진 후 일어난 두 차례의 발해인의 붕괴에서 중심인물이 각각 대씨(大延琳)와 고씨(高永昌)였다는 사실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 중 고씨는 고구려의 大姓이었으니, 대씨의 출자가 관심의 초점이 된다. 대씨는 발해의 왕족이었고 영주 방면에서 동주해운 집단, 즉 (A)의 ①과 (B)의 ①의 중심이었다. 만약 대씨가 고구려인이었다면, ‘토인’은 고구려인이 주류가 되었던 집단임이 명백해진다. 그러면 대씨의 出自에 대해 살펴보자.

3) 발해 왕실의 출자

발해 왕실의 시조인 대조영의 출자에 대해서는 이를 ‘高麗別種’이라 한 《舊唐書》 발해말갈전의 기록과, ‘粟末靺鞨族으로서 고구려에 복속했던 자’라 한 《신당서》 발해전의 기사를 각각 대표로 하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전승이 전해지고 있어 논란이 거듭되어 왔다. 《구당서》 발해말갈전과 《신당서》 발해전 기사는 각각 장·단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그 중 어느 한쪽의 전승 내용이 우월하다고 여겨 그것에 의거해 논의를 전개시키는 것은 절반의 설득력을 지닐 뿐이다. 그래서 양 전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제기되었다.

別種의 ‘別’을 서로 다르다는 의미로 파악해, 별종은 ‘종족상으로는 별개이나 다만 정치적으로 예측관계에 있는 집단을 지칭한 것이다’라는 해석은 그러한 시도의 하나이다.⁸⁾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면 신·구당서의 기록은 같

은 의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별종’은 단순히 정치적인 상하 統屬關係에 있는 집단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漢族에 종속되었던 집단은 무수히 많았지만, 漢人別種이란 말은 없다.⁹⁾ 별종은 기준이 되는 집단과 어떤 종족상의 친연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여겨진 집단을 지칭한 용어인 것이 분명하다.

두 전승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다른 한 견해는 발해인 濊(貊)族說이다. 즉 이 설은 ‘고려별종=예(맥)=말갈말갈=속말말갈’이라는 이해이다.¹⁰⁾ 이 설의 기저는 사서에서 동일하게 말갈족이라고 기술된 족속은 실제로는 서로 다른 두 부류의 종족으로서, 속말부·백산부와 같은 예맥계 말갈과 흑수부 등과 같은 挹婁-勿吉系 靺鞨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보는 데 있다. 그런데 속말부는 《隋書》나 《신당서》·《구당서》에서 말갈족으로 분류되었다. 《수서》靺鞨傳에서 속말부를 말갈족이라 한 것은 隋에 來朝해온 속말부인의 말에 의한 것이다.¹¹⁾ 그리고 수·당의 영내로 이주해간 속말부인은 모두 말갈족으로 명기하였다.¹²⁾ 흑수부 등 다른 여러 말갈족 집단들의 존재를 알고 있던 당시 중국인이 속말부인을 계속해서 말갈족으로 파악하였다는 사실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당시 자타에 의해 모두 그 종족 명칭을 말갈족이라 한 것을 굳이 예(맥)족으로 파악할 근거는 없는 것이다. 부여성 일대에 거주하던 속말부를 唐代에 浮渝靺鞨이라고도 불렀던 것은 그들의 거주지의 명칭에서 연유한 말갈족 내에서의 구분을 표시한 것이며, 그들은 종족상으로는 어디까지나 말갈족이었다. 말갈족이 부여지역에 많이 거주하게 된 것은 5세기말 이후 물길의 부여지역을 일시 석권함으로써 부여의 왕실이 고구려 내지로 이주하는 등의 정세 변화에 따라 이 지역으로 상당수의 말갈족이 이주한 이후부터였다.¹³⁾

8) 張博泉, 〈‘別種’草議〉(《社會科學戰線》1983-4).

9) 孫進己 等, 〈渤海의族源〉(《學習與探索》1982-5).

10) 日野開三郎, 〈靺鞨の前身とその屬種〉(《史淵》38・39, 1948).

權五重, 〈靺鞨의 種族系統에 관한 試論〉(《震檀學報》49, 1980).

孫進己 等, 위의 글.

韓圭哲, 《渤海의 對外關係史-南北國의 形成과 展開-》(신서원, 1994), 68~82쪽.

11) 盧泰敦, 앞의 글, 註 110 참조.

12) 속말부의 大首領으로서 隋에 망명한 突地稽의 경우, 그의 아들이 唐代에 高麗로 還歸한 이후에도 그 출자를 말갈족이라고 명기하였다(《新唐書》권 110, 列傳 35, 諸夷蕃將, 李謹行).

13) 盧泰敦, 앞의 글.

그리고 《수서》에서 말하는 불열부 이동의 말갈과 그 서쪽의 말갈족간의 차이는 철기문화의 보급도나 농경화의 정도에 따른 말갈족 내에서의 문화적 낙차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三國史記》신라본기와 백제본기 초기 부분에 한반도 내에서 활약하는 말갈의 존재가 전해진다. 그러나 당시 동해안 일대의 주민을 《三國志》동이전에서 濊라 하였고 〈廣開土王陵碑〉에서도 濊라 한 것으로 보아, 이는 역시 丁若鏞 이래로 주장되어 온 僞靺鞨說을¹⁴⁾ 취하는 것이 옳으리라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발해 왕실의 출자에 관한 두 전승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성립하기 어렵고, 두 견해는 계속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듯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다시 한번 別種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별종의 용례로서 후예를 뜻하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으로 별종은 기준이 되는 本族에 비해 支派·別派, 또는 嫡系에 대한 傍系의 집단이라는 뜻이 있으므로 본족과 별종은 함께 존재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두 집단이 중국인에 의해 별종관계로 파악된다는 것은 양자가 계통면에서 同種임을 뜻하며, 아울러 현상적으로는 양자간에 동질성과 함께 약간의 상이성도 띄고 있었던 상태를 말해준다. 이런 별종이 생성되게 되는 동인으로는 種族分岐를 생각할 수 있다. 실제 족제적 성격이 강한 초기 고대사회에서는 인구의 증가나 통수권 계승문제 및 정책결정에 따른 異見 등등의 문제로 인하여 생긴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때로는 전쟁 등에 따른 여파로 집단의 분기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이주한 예는 흔히 볼 수 있다.

그런데 일정한 영역 내의 주민들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지닌 지배체제를 구축한 영역국가에서는, 그러한 종족의 집단적인 분기는 극히 어려운 일이다. 오히려 족제적 질서 자체가 해체되어 감에 따라, 영역국가에서는 종족

길림성 榆樹縣 老河深유적은 3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상층에 있는 무덤에서 북주 무제 건덕 3년(574)에 처음 주조된 ‘오행대포’가 출토되었다. 상층유적은 말갈족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勿吉 발흥 이후 속말수 유역의 부여지역으로 상당수 말갈족이 이주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필자의 추정을 뒷받침해준다(吉林省 文物考古研究所 編, 《榆樹老河深》, 1987, 119~121쪽).

14) 丁若鏞, 〈疆域考〉 권 2(《與猶堂全書》 6집).

의 분기가 아니라 영역 내의 같은 계통의 종족들간에 융합이 진행되었다. 나아가 특정 족속에 의해 주도된 영역국가가 수백년에 걸쳐 우월한 세력과 문화를 유지해 나갔을 때, 주변의 이질적인 기원을 지닌 족속들조차도 점차 그 에 동화되어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고구려의 경우 5세기초 이후 이백 수십년 동안 남부와 북부의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국경선에 큰 변동이 없었고, 전국이 크고 작은 성을 단위로 한 행정구역으로 편제되어 있었다. 사회분화가 깊이 진전되었고 빈부의 차등에 의거해 조세가 부과되었으며 율령이 시행되어 왔다. 그런 가운데서 초기 고구려국에서 原고구려족, 즉 5部民이 지녔던 집단적인 우월적 지위도 소멸되었으며, 그 영역 내에 포괄되어 있던 여러 족속들간에 상호 융합이 진전되었다. 그 결과 보다 큰 단위로서의 고구려인이 형성되어 갔다. 원고구려족을 중심으로 한 상호 융합 과정에서 그 영내에 포괄되어 있던 족속들 중에 상대적으로 융합이 덜 진전된 집단이 있을 수 있다. 이 때 융합·동화의 기준은 국내성·평양·요동평야 등 고구려의 중심지역의 주민의 그것이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려나갈 때, 상대적으로 바깥쪽 즉 변경지역 주민의 문화와 사회의 성격은 중심부에 비해 다소간의 차이를 지니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668년 이후 당이 고구려유민들을 가능한 한 분리시켜 파악해 지배하려고 하였을 때, 그러한 부류는 별종으로 구분되었을 수 있다.

특히 말갈족과 근접해 살고 있던 변경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고구려계 사람들의 습속과 생활양태는 중심부의 고구려인의 그것과 상당한 차이를 지녔을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변경지역에 거주하며 오랜 동안 고구려의 지배 아래 있었던 말갈족 중 일부는 고구려인의 영향을 받아 사회적 문화적으로 상당히 고구려화되었을 것이다. 그런 지역에 살았던 양 계통의 주민간의 차이는 가령 중심부의 고구려인과 흑수말갈과의 사이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현저한 것이 아닐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지역 출신일 경우, 당시 중국인과 같은 제3자가 그 출자를 운위할 때 그 족속 계통에 대한 두 갈래의 전승이 나올 소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대조영집단의 출자에 대한 《신당서》와 《구당서》의 전승 사이의 차이는 極對極의 현격한 것이 아니다. 즉 그

전승은 속말수 유역에 거주하던 고구려계 변경민(《구당서》)과 고구려화한 말갈계 주민(《신당서》)으로 각각 말하고 있다. 두 경우 중 어느 쪽이 더 타당한지 단정할 자료는 없다. 그런데 668년 이후 속말말갈 내의 여러 집단들의 정치적 움직임이 상이하였는데, 그 중 결사비우집단은 당에 강제 이주되었다. 이는 이 집단이 그 동안 고구려와 밀착된 관계를 지녔기 때문이며, 그만큼 속말말갈 내의 여타 집단들에 비해 고구려화된 면을 지녔을 것으로 보여진다. 결사비우에 대해서는 모든 기록에서 한결같이 말갈족이라 전한다. 그에 비해 ‘高麗舊將’이라는 전승도 전해지는 대조영의 경우는 ‘고려별종’이라 한 것이 다수이다. 이는 양자간에 차이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결사비우가 고구려화된 말갈족이라면 대조영은 그보다 더 중심부의 고구려인에 가까운, 그리고 더 고구려 조정에 밀착된 면모를 보여준다. 이는 곧 그가 변경의 고구려인이었을 가능성이 더 큰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점만으로 단정하기는 충분하지 못하다. 발해 왕실 스스로의 의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발해인의 귀속의식

727년 일본에 처음으로 사신을 파견하면서 보낸 국서에서 무왕은 발해가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였고 부여의 遺俗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이듬해 일본측에서 발해에 보낸 국서에서는 발해가 “옛 땅을 회복하고 (일본과의) 지난날의 우호적 관계를 이으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쁘다”고 하였다.¹⁵⁾ 759년에는 일본에 弔問使를 보내면서 문왕이 스스로 ‘高麗國王 大欽茂’라고 하였고¹⁶⁾ 같은 해에 일본에서 발해에 보낸 국서에서 발해왕을 ‘高麗國王’이라 하였다.¹⁷⁾ 渤海使를 高麗使로, 발해국을 고려국으로 표시한 예는 《續日本紀》에서 여러 군데 보인다. 비단 사서뿐 아니라 平城宮 출토의 木簡에서 발해사를 고려사로 기술한 것이 보이며, 763년에 쓰여진 東大寺의 고문서에서

15) 《續日本紀》권 10, 聖武天皇 神龜 5년 4월 임오.

16) 《續日本紀》권 22, 淳仁天皇 天平寶字 3년 정월 경오.

17) 《續日本紀》권 22, 淳仁天皇 天平寶字 3년 2월 무술.

도 발해인을 고려인으로 기술하였다.¹⁸⁾ 이처럼 일본과의 교섭에서 발해왕실은 발해가 고구려 계승국이라는 입장을 취하였고, 일본측에서도 발해를 고구려의 계승국이라고 일반적으로 널리 인식하고 있었다. 당시 일본인들이 발해가 고구려의 계승국이라는 인식을 지속적으로 지녀왔던 것은 발해 조정의 표방뿐 아니라 발해를 방문한 일본 사신의 견문과 일본에 간 발해 사신과의 접촉 등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발해인의 역사계승의식을 검토할 때 발해가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고구려 계승국임을 표방하였으나 당과의 교섭에서는 그런 면을 일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당과 발해간의 교섭에서 고구려 계승이란 이미지가 지니는 의미에 대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당에게 고구려라는 나라는 두려움을 주는 勁敵이었다. 그러한 인상을 발해가 새삼 불러일으켜 적대감을 야기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발해와 당 사이의 교섭이 열린 8세기 전반에는, 당이 정책적으로 고구려의 왕손을 고려조선군왕으로 봉하여 당의 수도에 幽居시켜 두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발해가 고구려의 계승국임을 표방한다는 것은 발해의 외교적 위치만 약화시킬 뿐이었다. 발해 조정이 이 점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일본에 보낸 발해 사신에는 고씨가 많았는데 비하여, 8세기에 당에 파견한 사신에는 고씨가 없고 대씨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발해 전 시기를 통하여 발해인이 스스로 말갈족의 후예라고 한 예를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그에 대한 부정적 의식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792년 발해가 당에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 사절단의 대표인 楊吉福이 띠고 있었던 발해의 관직명이 ‘押靺鞨使’였다.¹⁹⁾ 이 관직명은 곧 말갈을 관할하는 직책이라는 뜻을 지닌 것이다. 이 때의 말갈이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관직명을 통하여 당시 발해 조정이 말갈족에 대하여 어떤 동족의식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발해 왕실과 그 중심 족속이 말갈족이었다면 발해 건국 후 백년

18) 石井正敏, <日渤海交渉における渤海高句麗繼承意識について> (《中央大學大學院研究年報》4, 1975) 참조.

19) 《唐會要》권 86, 渤海.

도 되지 않은 시기에 그러한 관직명을 사용하였다고 상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 다음 발해국 주민이 남긴 무덤양식을 살펴보면, 토광묘와 석실봉토묘 및 벽돌무덤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토광묘는 말갈계의 무덤양식이다. 발해의 중심지였던 목단강과 해란강 유역 등에는 다수의 석실봉토묘가 있다. 敦化의 六頂山高분군에는 문왕의 딸인 貞惠公主墓를 포함하여 발해 초기의 왕실과 귀족층 무덤이 몰려있는데 모두 석실봉토묘이다. 발해 초기 지배층의 무덤양식이 고구려계의 석실봉토묘라는 것은 이들의 족속 계통을 말해주는 한 단면이다. 벽돌무덤은 발해 중·후기에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발해의 벽돌무덤인 정효공주묘에 그려진 벽화도 唐風이 짙게 배여 있다. 이는 발해의 지배층이 당의 문화를 적극 수용한 데 따른 변화이다.²⁰⁾

발해인의 고구려 계승의식은 발해유민들 사이에서도 보인다. 서경 압록부에 근거를 둔 발해유민의 나라인 定安國의 왕이 여진 사신 편에 부쳐 송에 보낸 국서에서 자국의 내력을 ‘高麗舊壤 渤海遺黎’라고 하여²¹⁾, 고구려-발해로 이어지는 계승의식을 표방하였다. 이 밖에 요대에 요동지역에 거주하던 발해인 중 유력 가문인 遼陽 張氏와 熊岳 王氏 등도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었다.²²⁾

이러한 발해인의 고구려 계승의식은 발해사회의 주민구성이 土人和 말갈로 이루어진 이중성으로 초기부터 나타났고, 발해 멸망 후에는 그 주민이 발해인과 여진인으로 뚜렷이 구분되는 존재양태를 지녔던 사실과 연결되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보다 확실한 이해를 가지게 해준다. 즉 대조영집단이 말갈족이나 아니면 속말수 유역의 변경의 고구려인이었느냐에 대해 발해 왕실 스스로의 표방으로 보아 후자쪽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볼 때 실제로 더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은 ‘高麗別種’인 발해 왕실이 건국 후 고구려인과 결합하여 그들이 중심이 된 사회를 건설해 나갔느냐 아니면 말갈족과 결합해 나갔느냐는 문제이다. 그 점에서는 전자 쪽임

20) 정영진, <발해무덤연구>(《발해사연구》1, 연변대학 출판사, 1990) 참조.

21) 《宋史》권 491, 列傳 250, 外國 7, 定安國.

22) 盧泰敦, 앞의 글.

이 명백하다. 설사 대조영의 먼 조상이 말갈계였을 경우를 상정한다고 하더라도 대조영 자신이 고구려의 무장이었으며, 건국 초기부터 보이는 발해 왕실의 귀족의식과 주민구성 및 그와 연결된 지배구조를 살펴볼 때, 대조영은 고구려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점은 金의 왕실인 完顔家의 경우가 좋은 참고가 된다.

금의 왕실인 완안가의 시조 전승에 의하면 그 선조는 고려인이었다고 한다.²³⁾ 북중국을 정복하고 제국을 건설한 후에도 그러한 시조 전승은 금 왕실에 의해 인정되었다.²⁴⁾ 그 男系上의 시조가 고려인이었다고 하지만, 금국 성립 당시 완안가는 엄연히 여진인이었고 그들이 취한 방향과 그 세력기반도 여진인이었다. 오늘날 누구도 금 태조 阿骨打를 고려인이라고 하는 이는 없다.

이상의 검토를 통하여 앞에서 제기한 ‘토인’의 성격에 대한 문제는 보다 뚜렷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토인은 고구려계 인과 영주에서 동쪽으로 이동해온 말갈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중심이 된 집단은 전자이며 후자가 그에 융합되어 들어가는 형태로 토인, 즉 발해인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후자가 이미 고구려 존립 당시부터 상당히 고구려화되었고 또 영주에서의 유거생활과 東走 과정을 통하여 고구려인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양자는 보다 용이하게 융합될 수 있었고, 발해 건국 초기부터 말갈과 구분되는 ‘토인’이라 지칭되는 하나의 족속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발해국의 진전에 따라 일부의 말갈족이 토인에 동화되어 융합되어 갔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발해국은 고구려 계승국의 성격을 띠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발해국의 성격이 고구려와 같을 수는 없다. 시대와 무대가 다른 만큼 양자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계승이란 이어서 변화 발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발해국이 고구려 계승국의 성격을 지녔던 사실은 당시 발해에 대한 그 인접국 사람들의 인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3) 金庠基, 〈金의 始祖〉(《東方史論叢》, 서울大 出版部, 1974) 참조.

24) 《金史》권 66, 列傳 4, 完顔昷 및 권 107, 列傳 45, 張行信.

5) 발해국의 성격에 대한 인접국인의 인식

발해국의 성격에 대하여 당나라에 끌려가 있던 고구려유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는 문제와 관련하여 779년 낙양에서 죽은 高震의 墓誌銘이 주목된다. 고진은 寶藏王의 손자였다. 그의 아버지인 連은 安東都護를 역임했으며 그도 안동도호를 지냈다. 그런 만큼 그의 집안은 발해국의 사정에 대하여 정통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고진의 묘지명에 그의 출자를 ‘발해인’이라 하였다.²⁵⁾ 비록 고진의 묘지명은 그의 사후에 쓰여진 것이지만, 그의 출자를 발해인이라 기술한 것은 평소 그와 그의 집안이 지니고 있던 스스로의 출자와 발해국의 성격에 대한 인식과 무관한 것일 수 없다.

다음으로 발해국 존립 당시 신라인이 지니고 있던 발해국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자. 839년 당에 가서 佛法을 구하려고 巡禮를 하였던 일본 승려 圓仁의 일기에 의하면, 당의 登州지역 赤山浦에 거주하던 신라인들이 사원에 모여 추석 명절을 즐기고 있었는데 원인이 추석의 내력을 묻자, 신라인 승려가 옛적에 신라가 발해를 격파한 날을 기념한 것이라 하며 그 때 신라에 격파된 ‘발해’의 잔여 무리가 북으로 가 故土에 의거해 건국한 것이 오늘날 발해라 불리는 나라라고 하였다.²⁶⁾ 여기에서 ‘발해’는 고구려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신라인 승려가 말한 추석의 기원에 대한 설명이 올바른지의 여부는 그만두고라도, 그가 고구려와 발해를 함께 발해라고 한 것이 주목된다. 이는 곧 당에 거주하고 있던 신라인들이 발해를 고구려의 계승국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나타내준다. 당시 당의 등주에는 신라와 발해의 무역관이 있었고, 양국인이 이 지역에 왕래하면서 무역을 활발히 하였다.²⁷⁾ 그런 만큼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신라인은 발해인과 경쟁의식을 지니고 있었고, 발해국의 성격에 대한 보다 명료한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5) 〈唐開府儀同三司工部尚書特進右金吾衛大將軍安東都護鄭國公上柱國公墓誌銘并序〉(《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Ⅰ, 韓國古代社會研究所), 541~542쪽.

26)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권 2, 開成 4년 8월 15일.

27)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권 2, 開成 5년 3월 2일.

신라 최치원의 글에서는 신라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던 발해에 대하여 “지난날의 고구려가 오늘날의 발해이다”²⁸⁾ “고구려의 잔여 무리들이 모여 북으로 白山 기슭을 의지하여 나라를 세워 발해라 하였다”²⁹⁾라고 하여, 발해와 고구려를 계승국관계로 파악하였다. 그의 글 중 〈謝不許北國居上表〉에서는 발해의 원류를 속말말갈이라 하였다. 최치원은 일찍 당에 유학가 장기간 머물렀던 만큼, 《신당서》 발해전의 이 관계 기사의 저본이 되었던 바와 같은 류의 전승을 알고 있었을 수 있고, 이 글은 그것에 의거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삼국사기》의 발해 관계 기사는 매우 적다. 발해라고 구체적으로 표기한 기사는 733년에 있었던 발해 공격에 관한 것 외에는 崔致遠傳의 기사뿐이다. 후자는 최치원문집의 것을 전제한 것이다. 전자는 성덕왕 32년(733)과 33년조의 기사에서 발해를 ‘발해말갈’·‘말갈’이라 하였다. 그런데 733년의 기사는 《資治通鑑》의 기사를 전제한 것이다. 734년의 기사도 당시 당에서 宿衛하고 있던 金忠信이 당의 황제에게 올린 글을 전제한 것이다.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는 당시 신라인의 발해국의 성격에 대한 인식의 구체적 면을 알아보기 어렵다. 《三國遺事》의 경우 紀異篇 靺鞨 渤海條에서 발해에 관한 《通典》의 기사를 전제한 후, 細註로 《삼국사기》의 기사를 略記하고 그리고 《新羅古記》의 기사를 소개한 뒤 자신의 按說을 서술하였다. 이 중 안설에서 “발해는 靺鞨種이다”라고 말하였으나, 이는 一然의 소견이므로 발해국의 성격이라는 객관적 사실이나 그에 대한 신라 당대인의 인식에 관한 문제와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 세주에서 주목되는 바는 《신라고기》의 기사이다. 이 《신라고기》의 작성 시기는 잘 알 수 없으나 신라 당대의 것일 가능성도 크다. 만약 그렇다면 여기에서 “高麗舊將 조영은 대씨로서 殘兵을 모아 태백산 남쪽에서 나라를 세워 국호를 발해라 하였다”라고 한 것은 신라인의 발해에 대한 인식의 한 면을 전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신라인들의 발해에 대한 인식은 김충신이나 최치원의 일부 글과 같이 당에 있을 때 썼거나, 당나라측의 정보에 의거한 것에서는 말갈계로 파악한 면을 보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고구려 계승국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28) 〈新羅王與唐江西高大夫湘狀〉·〈與禮部裴尙書瓚狀〉(《崔文昌侯全集》).

29) 〈上太師侍中狀〉(《崔文昌侯全集》).

중국의 사서에는 대조영의 출자를 고구려계로 기술한 것과 속말말갈계로 기술한 것 두 종류가 다 있다.

다음으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거란인들이 발해인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그 점에서는 발해를 멸망시킨 후 그 땅에 설립한 東丹國의 左次相으로서 발해인을 직접 통치하는 임무를 맡고 있던 耶律羽之의 견해가 주목된다. 그는 발해인의 저항이 계속되자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발해인을 요양으로 강제 이주시키자고 주장하는 상소문을 927년 요의 조정에 올렸다.

梁水の 땅은 발해인의 고향으로써 토지가 비옥하고 산림·철·물고기·소금 등이 풍성합니다. 발해인의 힘이 미약한 기회를 이용하여 그들을 이곳으로 옮기는 것은 길이 남을 계책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되고 또 산림·철·소금·물고기의 풍요를 획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이곳에서 안착할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 그들 중 무리를 뽑아 우리의 좌익으로 삼고, 돌궐·党項·室韋의 무리로 우익을 삼으면 가히 앉아서 南邦을 제압하여 천하를 아우를 수 있을 것입니다(《遼史》권 75, 列傳 5, 耶律羽之).

상소에서 梁水 즉 太子河유역을 발해인의 고향이라 하였다. 이 표현에 대하여 발해인의 원류를 말갈족이라고 보는 시각에서, 대조영의 먼 조상이 이 지역에서 살았던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한 견해가 있었다.³⁰⁾ 그런데 태자하 하류에 고구려의 요동성이 있었고 그 부근에 태자하를 끼고 백암성이 있었다. 신성·개모성·안시성 등도 요동성 등과 평야로 이어지는 지역에 있었다. 그런 만큼 이 지역 일대는 고구려의 핵심지역의 하나였다. 발해 성립 이전 시기에 이 지역이 그들의 고향이라 운위될 만큼 말갈족이 집단적으로 살았던 적이 있었다는 기록은 전혀 없다. 그리고 위의 글에서 양수지역에 풍부한 물산의 하나로 소금을 들었다. 내륙지역인 태자하유역만을 대상으로 하여 언급한 것으로 볼 때는 이해되지 않는다. 이는 발해인을 이주시킬 대상지역이 요동지역 전체임을 전제로 한 말이며, 요의 동경성이 있던 태자하유역을 그 대표로 언급하였던 것이다. 실제 요에 의해 발해인은 요동의 각지로 옮겨졌다.

30) 金毓黻, 《渤海國志長編》권 19, 叢考.

발해 이전 시기에 요동 일대에 널리 살았던 족속은 고구려인 외에는 없다. 이렇게 볼 때 이 지역을 발해인의 고향이라 한 것은 발해인이 원래 고구려인이었다고 여긴 거란인의 인식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³¹⁾

이 밖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돈황문서 <북방 몇몇 나라의 王統에 관한 叙記>(Pelliot Tibetain 1283)에서 발해에 대하여 “...티베트인이 He라 부르고 중국인이 He-tse(奚)라 하며 Drug인이 Dad-pyi라고 부르는 종족이 있는데...그(奚) 동방을 보면 Drug인이 Mug-lig로, 중국인이 Ke'u-li라 부르는 나라가 있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Drug는 터키계 종족을 지칭하며 Mug-lig는 발해를 의미한다. Mug-lig는 원래 돌궐에서 고구려를 지칭하는 ‘Mökli(纁句麗)’에서 비롯한 말인데, 8세기 이후 발해를 지칭하는 용어로 계속 사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고구려 멸망 후 상당수의 고구려유민들이 돌궐로 이주하였으며 발해는 건국 직후부터 돌궐과 교섭을 가졌기 때문에, 고구려와 발해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내륙아시아 터키계 주민들이 발해를 지칭하여 계속 Mug-lig라고 한 것은 발해국의 성격을 이들이 어떻게 이해하였는지를 나타내준다. 아울러 당시 중국인들이 발해를 Ke'u-li 즉 고려라고 하였다는 것도 당나라인들의 발해국의 성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주는 자료가 된다.³²⁾

이렇듯 발해국 존립 당시 발해국의 성격에 대한 인접국인의 인식에서 발해 왕실에 대한 두 가지 전승이 알려져 있던 당과 신라에서는 두 면이 보이지만, 당에 끌려갔던 고구려유민과 당에 거류하고 있던 신라인 및 일본인·거란인·내륙아시아인 등은 발해를 고구려의 계승국으로 파악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발해가 고구려인들에 의해 주도된 국가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 점과 함께 발해 멸망 후 상당수의 발해유민이 고려로 넘어왔고, 우리 선

31) 여기에 표현된 ‘고향’을 ‘故土’와 같은 뜻이라 하여, 10세기초 거란이 빼앗기 전에는 요동지역이 발해의 영토였다는 사실을 환기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宋基豪, 《渤海政治史研究》, 一潮閣, 1995, 32쪽). 그런데 당시 徙民의 주된 대상은 동부 만주지역 방면의 발해인이었다. 그들을 요동으로 옮기게 되면 ‘彼得故鄉’이라 하였을 때, ‘고향’은 동부 만주지역에 자리잡기 이전의 지역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고향’을 ‘고토’로 보더라도 그 의미는 동일하다.

32) 盧泰敦, 〈高句麗・渤海人和 內陸아시아인과의 交涉에 대한 一考察〉(《大東文化研究》 23, 成均館大, 1989).

인들이 발해를 한국사의 일부로 인식해왔다는 사실은 곧 발해사가 한국사의 한 부분이 되는 구체적 근거가 확보되는 셈이다. 발해국의 주민구성의 이중성은 발해사의 귀속면뿐 아니라, 발해사회와 문화 및 그 정치구조와 운영을 이해하는 데 고려하여야 할 주요 요소이다. 물론 이 점이 곧 발해사의 여러 측면의 성격을 전적으로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며, 발해사가 고구려사의 연장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발해사는 고구려사의 그것과는 다른 객관적인 상황과 조건 및 과정을 거치면서 진전되었다. 그에 따라 자연 발해사의 독자적인 면모가 형성되었음은 당연한 것이며, 구체적인 연구를 통하여 그런 면에 대한 파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盧泰敦〉